

여서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4월
2025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송현동지점 거래고객
(주)케어원 김호영 회장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분당서현역지점 거래고객
서울나우병원 성장남 원장



IBK 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좋은 직원과 오래오래 함께하고픈 대표님께

인재를 지키기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고,
직원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저축.
지금, IBK기업은행에서 시작하세요.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이란?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은 재직자가 월 10만~50만원을 적립하면 중소기업이 재직자 납입금의 20%를 납입하여 만기 시 정기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오래오래 중소기업에게 든든하게

오래오래 재직자에게 넉넉하게



- 납입금 전액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 적용
- 법인기금(순금), 개인기금(원오형) 인정

◀ 기업을 위한 IBK기업은행만의 가지 혜택 확인하러 가기



- 기업지원금 + 우대금리 = 최대 4,029만원 목돈 형성 (원금 3,000만원 기준)
- 만기 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최대 90% 감면

◀ 재직자를 위한 IBK기업은행만의 가지 혜택 확인하러 가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7641호(2024.12.17) 유희기간(2025.12.16) · 가입대상: 중소기업·업진흥공관에서 상품가입을 승인한 설명의 개인(외국인 가입가능)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약관에 따른) · 가입채널: 영업점, 청구, FONE Bank(가인) · 계약기간: 3년제, 5년제(3년제는 추후 판매 예정) · 적립금액: 최소 10만원 이상 월 50만원 이내로 월 1회 납입 가능, 최초 가입한 금액(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약관에 따라 중소기업·업진흥공관에서 승인한 금액으로 적립가능) 만기 시 예상수취이액액, 최고금리연5.0%(적용 시 예상수취이액액 2,287,500원(세전, 월 납입액 30만원, 계약기간 180개월) 기준)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계약기간 등에 따라 세부사항 변동가능) · 적용이자율(24.12.17 기준, 세전): 최고이자율연5.0%(기본이자율+우대이자율), 기본이자율: 연3.0%(3년 5년) · 기본이자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된 계약 간별 기본이자율 적용 · 가입일 이후 3년 경과 시 1년 단위로 기본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우대이자율: 최고 연 2.0%(계약자세 연1.0%p, 저모금계금 자동이체 연 0.5%p, 카드이용 연 0.5%p) · 이자 및 수익의 지급시기: 만기일(사지급-연간(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계좌에 압류, 가압류, 차관상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연당*5 천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자세한 문서는 가비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호 제형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 04 여성시대 50주년 특집
여.보.세.yo!
- 14 이달의 편지
'탁 독서회' 외
-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주)케어원 김호영 회장
-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서울나우병원 성정남 원장
- 80 코너 속 편지
'하숙집 딸의 마음' 외
- 111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라디오 사랑
- 113 김일종의 스튜디오에서
함께 그리고 새로운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5년 4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종 **프로듀서** 안동진, 김예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에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콩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건설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여성시대 50주년 특집

여.보.세.yo!



여
자도 남자도 함께 웃는
보
다 나은
세
상은?
yo! 모두가 신이 납니다.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신나는 세상을 위해
출산, 육아, 경력단절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딩크족의 최후

애청자

남편과 결혼하기 전 나는 확답을 받아야 할 것이 있었다. 그건 바로 ‘결혼 후에도 아이는 갖지 않겠다’는 약속! 어떤 사람들에게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 것이다. 특히나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결혼 전 꼭 남편과 시댁에 내 의사를 전달하고 모두가 동의해 준다면 결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들 일명 ‘딩크족’이란, ‘Double Income No Kids’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라고 한다. 아이를 갖지 않은 채 부부가 모두 일하며 수입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결혼 이후의 이상적인 삶이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도 다녀온 후 내 전공을 살려 취업을 했고 몇 번의 이직 끝에 만족할만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성취감 있는 생활이 좋았다.

내가 본 선배들의 모습은 딩크족으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했다. 여직원이 많은 회사인지라 여자 선배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걸 많이 봤고 그로 인해 늘어나는 업무 과중으로 회사 내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물론 선배들의 잘못은 아니다. 대체 인력을 적절히 충원해주지 않은 회사 탓이다. 하지만 결국 눈총을 받는 건 육아휴직을 쓰는 당사자의 몫이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자 직원들의 육아휴직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해 아이가 생기면 남편보다 여자인 내가 육아휴직을 하고

애를 돌봐야하는 건 불 보듯 뻔했고 난 내 경험을 포기한 채 승진도 뒤쳐지고 집에서 애만 봐야하는 삶을 원치 않았다.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처음엔 나의 제안을 고민하는가 싶더니 원하는대로 하겠노라 말해주었다. 그러나 넘어야할 산은 또 있었다. 바로 우리 집과 시대.

일단 우리 집은 수월하게 넘어갔다. 엄마는 스물세 살에 대학도 졸업하지 않고 일찍 결혼을 하셨던 분이래 딸인 내가 많이 배우고 결혼도 늦게 하길 바라셨다. 요새는 여자도 능력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하실 정도였으니 “딩크족? 그래! 네 맘대로 해! 니가 원하는 삶을 멋지게 살아라!” 하셨다.

문제는 시대이었다. 누나 하나에 외아들이었던 남편이 대를 잇지 않겠다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남편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부모님이 포기해주셨고 우린 많은 산을 넘어 마침내 결혼에 골인했다.

3년간 딩크족으로 살며 신혼을 즐겼다. 매일 같이 출근하고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저녁도 해놓고 밥하기 싫은 날엔 배달도 시키고 퇴근 시간이 겹칠 땐 만나서 외식도 하며 연애인 듯 결혼인 듯 그렇게 재밌게 살던 어느 날이었다.

생리 주기가 일정하던 내가 예정일이 한참 지나도 생리를 하지 않았다. 평소 건강에 엄청 예민했던 나는 폐경이라 확신했다. 친정엄마도 또래보다 조금 이른 폐경을 하셨던지라 늘 신경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기 폐경이라니! 갑자기 우울해졌다.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지만 이제 영영 갖지 못하게 되었구나.’

생각하니 조금 아쉽고 쓸쓸했다. 회사에 출근하니 몸 상태가 조금

더 이상해졌다. 가슴도 평소보다 부풀고 멍울이 진 듯 아팠다. 피임을 철저히 했으니까 임신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싶어 테스트기를 사왔는데 선명하진 않지만 희미한 두 줄이 보였다. 그대로 산부인과로 달려가 초음파로 아기집을 확인했고 임신 6주 차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허탈해서 웃음이 났다.

‘벼락같이 찾아온 이 아이는 뭐지?’

‘남편에겐 뭐라고 하지?’

너무 혼란스러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 혼자 며칠을 끙끙 앓았다.

“주말에 어디 교외로 놀러 갈까? 아님 곱창에 소주 한잔 할까?”

남편이 이런저런 주말 계획을 얘기하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할 얘기가 있다며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여보, 우리 아이 없이 사는 거 어때? 괜찮아? 당신 친구들은 벌써 다 아빠 됐잖아. 부럽지 않아?”

남편은 나를 뻔히 쳐다보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다.

“난 이대로그가 좋아. 너랑 이렇게 둘이 알콩달콩 사는 게 진짜 행복해!”

난 그의 말을 듣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는 꼭 쥐고 있던 초음파 사진을 주머니에서 꺼내 남편에게 보여주었다.

“나 임신했대! 어떡해?”

“뭐? 뭐라고? 어떡하긴 뭘 어떻게! 낳아야지. 아씨! 나 아빠 된다!”

좋아서 난리가 난 남편을 보니 황당했다. 남편은 나를 만나기 전까지 단 한번도 덩크죽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

를 낳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아이 없는 삶을 원하니 그저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뿐이고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됐다고 단념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피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니까 솔직히 너무 좋다고 했다.

그렇게 남편 나이 서른아홉, 내 나이 서른일곱에 딱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나는 아직도 아이가 내 뱃속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마음껏 행복해하고 기뻐해 주지 못한 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른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주며 키우겠노라고 다짐했고 지금은 그 아이가 다섯 살이 되었다.

내 주변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생기지 않아 병원에 다니면서 고생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혹시나 내 이야기가 그런 누군가에게 상처일까도 걱정이 된다.

하지만 이걸 모두 하늘의 뜻이라 생각한다. 덩크족으로 살 때도 충분히 행복했고 지금 아이와 함께하는 이 삶도 더없이 행복하다. 그래서 오늘도 난 벼락같이 찾아온 이 아이를 주신 하늘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간다.

딱 맞게 찾아온 복덩이

허윤정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저는 세 딸을 둔 58세 엄마입니다. 제 생일은 음력 1월 26일이라서 직장에서는 늘 새해가 되고 얼마 안 된 때라 우왕좌왕 바빠서 흐지

부지 지나가 버리기 일쑤인 생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웬일로 제 생일 일주일 전부터 화려한 회식 자리가 하루걸러 한 번씩 열리는 거예요. 월요일엔 전 직원 힘내라고 해물 듬뿍 들어간 칼국수에 파전이 점심 회식으로 나왔고, 수요일은 제가 추진하는 사회의 회기 마감이라서 근사한 주꾸미 볶음에 칼국수 회식이 있었고, 금요일엔 다른 곳으로 진출 가는 동료의 송별회로 소왕갈비 저녁 회식이 있었지요.

월수금 있었던 회식 자리 사진을 가족 독방에 올리며 ‘회사에서 엄마의 생일 주간을 이렇게 축하해주고 있단다. 엄마 혼자 그렇게 생각하며 즐기고 있어~’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배부른 생일 주간을 보내고 드디어 일요일에 진짜 제 생일날 가족과 생일파티가 열렸어요. 다 큰 딸들은 독립했거나 결혼해서 따로 사는지라 한자리에 모두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엄마 생일이라고 다들 시간 내서 식당 예약하고 케이크를 사온 게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좋아하는 초밥 뷔페집을 예약했다길래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큰애가 갑자기 능이백숙집으로 바꾸자고 톡을 했더군요. 초밥 뷔페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족끼리 오붓한 대화가 잘 안 될 거 같더니요. 급변경된 능이백숙집은 조용한 룸에 도착하니 이미 푸짐한 상도 세팅되어 있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예쁜 케이크에 촛불도 끄고 막내는 특별 이벤트로 복권을 가족 수대로 준비했더라고요.

“지금 바로 한 장씩 끊어보세요.”

친절하게 백 원짜리 동전까지 함께 돌린 막내딸 덕분에 모두 신

중히 복권을 끊었습니다. 복권에는 총 9개의 그림이 한 줄당 세 개씩 세 줄로 그려져 있었는데 한 줄이라도 세 개의 그림이 똑같이 나오면 적혀있는 금액에 당첨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최고 당첨금은 무려 오억! 저는 신중하게 첫 줄을 끊었습니다. 팡! 둘째 줄은 또 팡! 셋째줄은 세 개의 그림이 똑같은 게 나왔고 적혀있는 당첨금 오억이 떴습니다.

“어머! 애들아~ 나 이거 이거 당첨금 주는 거 맞아?”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에 확인을 하고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 찰나 막내가 오른쪽 절취선 밖에 있는 부분을 마저 끊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나게 더 끊었더니 ‘할머니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요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뭐야? 요즘은 이런 복권도 있어?”

제가 신기해하는 찰나 옆에 있던 남편도 “어? 나도 똑같이 오억 원 당첨이야! 그리고 나도 여기 이렇게 써있는데 ‘할아버지로 당첨되신 것을 축하합니다!’라고.”

뭔가 이상하다 싶은 그때 막내랑 큰딸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카드를 내밀었고 열어보니 이제 막 임신한 상태의 태아 사진 아래 이런 편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딱복이라고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것을 축하드려요! 저랑은 10월에 만나요~ 사랑해요~>

그리고는 막내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어요. 대기업에 다니며 업무에 시달리다 번아웃이 온 막내딸은 긴 휴직 기간을 마치고 복직한 지 얼

마 안 된 때였는데 이런저런 걱정이 되면서도 조심스러워 선뜻 묻질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마의 생일에 맞춰 깜짝 이벤트로 임신 소식을 밝히니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감동이었어요.

애길 들어보니 결혼 3년 차 막내는 그동안 임신에 뜻을 두고 휴직을 했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 힘들다는 시험관 시술을 두 번이나 했더라고요. 근데 엄마인 저한테는 그걸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애~ 그럴 때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프다 힘들다 쩡쩡거리는 거야. 그럴 때 위로해 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게 엄마가 할 일인데 왜? 엄마가 못 미더웠어?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엄마 아빠가 알면 크게 걱정하고 슬퍼하실까봐 그랬지. 큰언니가 엄마 대신 모든 과정을 함께해줬어요.”

중간에서 엄마 역할을 대신한 큰애도 그렇고 그 힘들다는 시술을 하면서 엄마한테 얘기 못한 막내도 애뜻하고 짠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 딸이 큰맘 먹고 했다는 두 차례의 시험관 시술에서는 모두 임신에 실패해서 ‘에효~ 이제는 안되나보다. 더는 시술 안 한다’ 마음 비우고 회사에 복귀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때 자연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 그것도 새해 설날 즈음해서 ‘딱 맞게 찾아온 복덩이!’ 그래서 태명도 ‘딱복이’라고 지었대요. ‘딱복이’ 입에 착착 감기지요.

그 후로 엄마의 생일파티가 막내의 임신 축하 파티로 바뀌고 파티의 화려한 주인공은 제가 아닌 ‘딱복이’가 되어 저는 조연이 되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제 생애 가장 감동적이고 좋았던 조연이었답니다.

<열린 사서함>



[유진영] 저에게는 둘째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언니들이 있어요. 아들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8살이 되었으니 언니들과의 인연이 10년이 되었네요. 저희가 만난 지 10주년 기념으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선아 언니, 민정 언니, 영남 언니, 유니 언니, 옥경 언니. 너무너무 사랑하고 늘 감사합니다.

[이숙향] 여기는 포항인데요. 제가 이틀 전에 포항 206번 버스를 탔는데 기사분이 정말 멋지셨어요. 할머니가 타시니 앉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꼬마가 타면 꼬마한테도 인사를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사를 건네면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라며 시를 낭송해 주는데 버스에서의 15분의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최연수] 고등학교 단짝 친구인 민경이가 취업 시험에 낙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도서관을 오가며 열심히 공부한 친구인데 그 소식을 들으니 친구인 제가 힘이 다 빠지네요. 친구야, 기회는 아직 있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 다음 시험엔 꼭 행운의 여신이 너에게 윈크할 거야. 힘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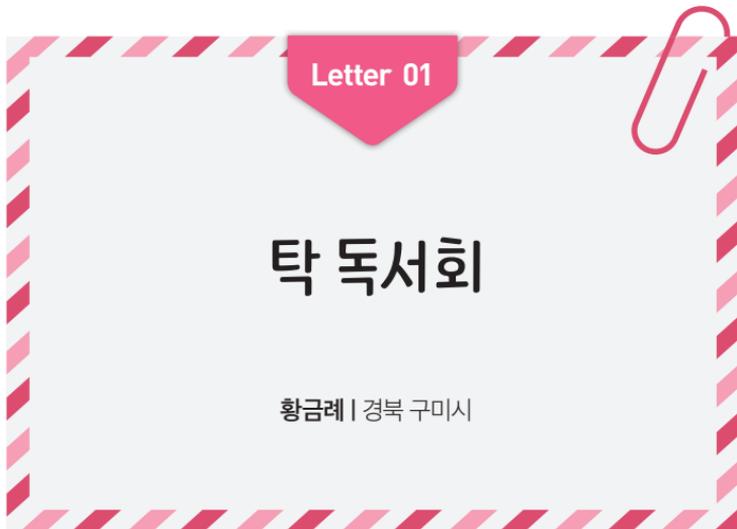
[김계순] 저는 5년 넘게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일했습니다. 정 들었던 곳에서 다음 학교로 발령이 난다고 해서 한동안 심난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중2 딸이 다니는 학교로 발령이 났습니다. 아들은 6학년이니 내년에는 딸과 아들이 같이 다니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점심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보면서 더 열심히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에 아주 가슴이 벅칩니다.





- | | | | |
|----|---------------|----|--------------|
| 14 | 탁 독서회 | 40 | 아버지의 수요일 친구 |
| 17 | 나의 삼식 씨 | 44 | 아들의 소원 |
| 20 | 다시 시작하기 좋은 계절 | 47 | 나이 든 천사 |
| 25 | 모두를 위한 기도 | 50 | 제주도에서 만난 은인 |
| 29 | 꿈에 찾아오는 엄마 | 55 | 남탕 청소 |
| 33 | 문화가 있는 나들이 | 58 |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
| 37 | 눈물이 납니다 | | |





열 정으로 가득한 저희 모임을 소개하고 싶어서 편지합니다. 저희 모임은 독서 토론회입니다. 회장의 이름 중 한 글자를 따서 '탁 독서회'란 모임을 만들었는데 높을 '탁'이라는 글자 원래의 의미도 있지만 책을 '탁 내려놓자' '뒹든 탁 내려놓자' 그런 뜻을 부여했습니다. '탁'이란 글자가 주는 힘 있고 경쾌한 느낌이 좋아서 다들이 이름을 좋아한답니다.

저희는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평생 교육 과정의 문예창작반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학기가 종료됐을 때 아쉬운 마음에 글쓰기의 연장선에서 같이 더 해보자고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40대, 50대, 60대까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가 두 사람입니다.

저희 모임은 세 가지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



는데 첫 번째는 주 교재인 '작가처럼 읽는 법'이란 책을 읽고 모여서 견해를 나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달 돌아가면서 멤버들이 한 권의 책을 추천하고 각자 읽은 후 느낀 점을 토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과제가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데요, 매일 총무가 '시제'를 제시하면 종일 공부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각자 그날그날의 작품을 써서 온라인 카페에 올리는 게 세 번째 과제입니다.

강제성은 없으며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이 일이 예상외로 참 재미가 있습니다.

회원 모두 오랜 세월 언젠가 글을 써 보고 싶다는 버리지 못한 꿈

을 붙들고 살아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해 보는 건 처음이라 매일 다른 제목으로 글을 쓴다는 게 처음엔 많이 부담스럽고 힘도 들고 그랬는데 몇 달이 지나니 이제는 다들 ‘오늘은 어떤 시제가 주어질까’ 궁금해하고 기다리는 즐거운 일상이 되었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영역에 오래 생각이 머물게 되다 보니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아무래도 글을 쓰려면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니까 뇌가 활성화돼서 모르긴 해도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의 글을 읽으며 자연스레 공부도 되고 생각이나 마음을 알게 되고 매일 서로의 일상도 공유하게 되니 짧은 기간에 굉장히 친밀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모임이 기다려지고 만나면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한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능력이란 말이 있듯 지금처럼 꾸준히 글을 쓰다 보면 1년 뒤엔 작은 시집 한 권을 만들 수 있겠다는 선부른 기대도 해보게 된답니다.

이번 달엔 막내 회원이 추천한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를 같이 읽기로 했습니다. 토론은 한 권의 책으로 참여한 인원수만큼이나 다양한 견해들을 나눌 수 있고 저마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 나의 지평을 넓혀 갈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함께 이름난 작가들의 문학 강좌를 듣는다든지 문학관 나들이나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도 구상 중인데 아무쪼록 저희 모임이 건강하고 예쁘게 잘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살면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할 수 없는 행운이요 특별한 축복이라 여겨집니다. 여성시대 당당이 분들의 모든 삶을 응원합니다.

Letter 02

나의 삼식 씨

김응숙 | 경북 영천시 오미동

점 심을 먹으러 들어온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참나! 머리를 못 감아서 모자 쓰고 나갔더니 날 못 알아보더라. 세 끼 밥해주는 것 가지고 당신이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오늘 아침엔 내가 살그머니 나와서 전기밥솥 꽂아놓고 물소리에 당신 잠 깰까 봐 머리도 못 감고 얼른 세수만 하고 밥 먹고 모자 쓰고 나갔지. 그랬더니 매일 농담하고 친하게 지내던 분이 내 차에 타고도 날 몰라봐!”

오늘 아침 자기가 먼저 일어나 밥 한 번 했다고 남편이 저리 생색을 내고 있다.

우리 집 나의 삼식 씨는 개인택시 운수업을 하는데 택시를 시작하고부터 나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따뜻한 밥에 따뜻한 국을 끓여서 새벽 5시 전에는 아침밥을 먹여 출근시킨다. 그러고는 또 점심

짓고 저녁 짓고 꼬박꼬박 삼시 세끼를 새로 따뜻한 밥을 지어 차려주기를 25년째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밥하기도 싫고 가끔은 피가 나서 “오늘 저녁은 사 먹읍시다!” 하고 사 먹을 때도 아주 가끔 있고 삼식 씨가 동료들과 점심을 밖에서 먹을 때도 가물에 콩 나듯 있다. 그럴 때는 나는 밥에서 해방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무척 좋고 반가운데 나의 삼식 씨는 그런 내 마음도 모르고 무척 자랑스럽게 이른다.

“동료들이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내가 안 오면 당신 혼자 점심 대충 먹거나 안 먹을까 봐 당신하고 먹으려고 거절하고 왔어.”

그럼 나는 “아이고, 여보세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요. 나도 배고프면 밥 차려 먹고 평생 전업주부로 삼시 세끼 밥을 지었는데 어찌다 한 끼쯤은 그냥 편히 있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나의 삼식 씨는 빠지는 것 또한 수준급이라 그냥 “잘했어요!” 웃으며 밥상을 차린다.

남편은 요즘 보기 드문 삼시 세끼 집밥을 원하는 ‘완전한 삼식 씨’다. 오늘 아침 같이 자기가 밥을 하는 일은 1~2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아니 25년 동안 열 손가락 안에는 들러나? 오늘 어찌다 내가 밤새 잠 못 자다가 새벽에 깜박 잠든 바람에 자기가 먼저 일어나 밥술에 물 붓고 끓여놓은 국 달아서 데우고 냉장고 안에서 반찬 몇 가지 꺼내 먹었다고 저렇게 큰소리치는데 만약 어느 하루 날 위해 요리라도 해줬다가는 온 나라가 다 떠들썩하지 않을까 싶다.

아차차, 그러고 보니 우리 집 나의 삼식 씨는 ‘한 요리’하는 실력과 다. TV에 나오는 요리사는 우리 삼식 씨 솜씨에 비하면 축에도 못 든다. 왜냐하면 그 요리사는 손으로 요리하지만 삼식 씨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입으로만 요리하기 때문이다.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

여러 손님이 타는데 식당 하는 분들도 있고 아주머니들과 연세 많은 할머니께 특히나 친절하다 보니 ‘요즘은 이런저런 반찬을 해 먹으면 달큰하니 맛있고 저런 걸 넣으면 시큰하니 맛이 없다’고 하시는 말을 듣고 와서는 나한테 ‘이 반찬은 이렇게 하면 맛있고 저 반찬은 저렇게 하면 더 맛있다’면서 입으로만 요리할 때 보면 일류 셰프 저리가라 할 만큼 일가견이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맛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요리 비법이지만 말이다. 그리고 문제는 실제로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는 점이 흠이지만 그렇게 입으로만 모든 걸 하면서도 자기만큼 মানুষ을 위해주는 사람은 없다면서 자신만만하다.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즐겁고 맛있게 밥을 먹다가 남편이 먼저 수저를 놓으며 그제야 밥을 먹는 내게 말했다.

“물 좀 줘.”

그러자 같이 밥 먹던 초등학교 1학년 외손자가 대뜸 “할배! 그 정도는 할배가 해도 되는 거 아냐? 왜 할배는 뭐든지 할매한테 시키는데?”했고, 옆에 있던 손녀 역시 “맞아! 할배는 왜 가만히 앉아서 할매만 다 시키는데?”하고 따져서 우리 모두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그 후로는 남편이 뭘 시키려고 하면 “올이 한테 이를 거예요. 그 정도는 할배가 해도 되는데 나만 시킨다고!” 하면서 같이 웃는다. 아마도 나의 삼식 씨가 나만 옆에 있으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것이 우리 손자 손녀 눈에도 보였나 보다.

오늘 일도 나중에 애들 모이는 날이 오면 “할매 폭 자라고 몰래 살금살금 나와서 내가 아침밥 했다!” 하며 어깨를 으쓱 자랑할 모습이 눈에 선하다. 어쨌거나 나의 삼식 씨, 앞으로도 내가 하루 세 끼 따듯한 밥 해서 바칠 테니 우리 건강하게 지금처럼 웃으며 남은 인생 잘 살아갑시다.

Letter 03

다시 시작하기

좋은 계절

장윤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4학년인 우리 아들은 친구들과 야구를 하곤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리틀야구단 입단 테스트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이 야구단은 주 6일 성실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입단 테스트만 통과하면 유니폼부터 장비까지 구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야구가 그렇게 좋으면 입단 테스트 받아 볼래?”라고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아이는 흔쾌히 해보겠다고 했고 2023년 12월 테스트에 참여했습니다.

야구를 잘 모르는 부모인 저희가 보기에는 리틀야구단인데 입단 테스트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30미터 달리기, 왕복 10회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2인 1조 캐치볼, 고정된 막대에 야구공을 올려두고 타격하는 ‘티 배팅’, 내야 수비 등 여섯 종목에서 상위권에 들어야

입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영하의 날씨 속에 30명이나 되는 개구쟁이 같은 초등학생 녀석들이 점퍼도 입지 않은 채 세상 진지한 표정으로 테스트에 참여했습니다. 여자아이도 있었는데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종목이 나오자 속상해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불합격이었습니다. 부모 닮아 운동신경도 없고 아빠와 캐치볼도 제대로 한 적 없으니 경험이나 해보라고 신청한 테스트에서 합격은 욕심이지요. 그래도 추운 날씨에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아들, 오늘 입단 테스트 어땠어?”

별생각 없이 질문했는데 아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벅찼어!”

저희 부부는 말문이 텅 막혔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대화를 했습니다.

“당신은 살면서 가슴이 벅찬 적 있어?”

“아니! 특별히 가슴 벅찼던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앞으로 아이가 살면서 가슴 벅찰 일이 얼마나 있을까?”

사교육을 매우 싫어하고 자기 양말이 다 늘어나도 사지 않는 남편이 그때부터 동네 사설 리틀 야구단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대회 출전반’에 등록하면 유니폼을 무료로 준다는 말에 혹해서 덜컥 등록했습니다.

아들은 그때부터 리틀 야구단에 등록하고 정식으로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취미로 일주일에 한 번만 시키려 했는데 일이 커진 거죠. 훈련은 화·목·토요일 일주일에 3번 가는데 대회가 다가오면 일요일에도 훈련했습니다.

하루 훈련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아이는 운동하는 날

이면 녹초가 되어 들어왔지만 3개월이면 그만둔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누워서 뒹굴뒹굴 책 보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황사가 있는 봄, 30도가 넘는 뜨거운 여름, 태풍이 있는 가을, 날씨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발이 빨라야 수비도 잘할 수 있다는 감독님 말씀에 운동 없는 날은 양쪽 발목에 2kg짜리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달고 계단을 뛰어오르는 훈련도 했습니다. 우리 집이 20층인데 말입니다.

작년 가을 우리 팀의 시즌 마지막 경기가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상대 팀은 5~6학년 형들로 구성되어 우리 팀과 키 차이도 크게 났어요. 상대 팀 부모님들이 안쓰러워할 정도로 우리 팀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점수를 계속 내주었습니다. 9회 말 우리 아들은 중견수 외야 수비를 보았는데 상대 팀의 마지막 타자가 외야로 넘긴 공을 뛰어가면서 잡아 아웃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막아낸 공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다른 엄마들과 얼싸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낳았다! 3.85kg 자연분만. 내가 낳았다!”

경기 결과는 9대 0 완패. 그래도 뭐 10대 0이 될 뻔한 경기를 9점 차로 장하게 막았습니다. 그날의 흥분이 너무도 생생하고 기뻐서 요즘도 영상을 보고 또 봅니다.

지난번에 양희은 님이 남자 형제도 없고 남편께서 야구 경기 룰을 가르쳐 주지 않아 모른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부연하면 내야 수비는 야구장 다이아몬드 안에서 공을 잡거나 막는 수비고 외야 수비는 다이아몬드 바깥쪽에서 공을 잡거나 막는 수비입니다. 중견수는 외야 수비 3명 가운데 중간에서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하며 수비하는 자리지요. ‘뜯공’이라고도 하는 외야 플라이볼은 타자가 쳐서

외야까지 뺀어 나간 볼인데 외야수들이 이 공을 한번에 잡으면 타자는 바로 아웃입니다.

1년 동안 시합에서 팀은 거의 매번 10대 0 콜드게임으로 졌지만 아이에게 승패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팀 운동을 하면서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잘하라고 응원하고 격려하며 형, 누나, 동생들과 끈끈한 정을 쌓았고 훈련 마치면 배트와 400개가 넘는 공, 글러브, 장갑 등 자신들이 사용한 장비를 즐겁게 정리했습니다. 야구장에 오시는 다른 부모님들께 모자를 벗으며 90도로 각듯이 인사하는 예절까지 배우는 아이가 대견했습니다. 부모끼리도 팀 아이들에게 서로 이모 삼촌이 되어주었습니다.

“여보, 나 예전에는 몰랐는데 운동선수들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러게. 쉬고 싶고 아픈 날도 있을 텐데 그 어려운 걸 끝까지 이겨낸 거니까.”

“야구시키기 잘한 것 같아. 운동은 어차피 해야 하고 살면서 알아야 할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럼. 나중에 야구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고 취미로 사회인 야구팀에서 뛰어도 되고 말이야.”

“난 남자 형제가 없어서 우리 아들이 운동하기 전까지는 이런 세계가 있는지 정말 몰랐어. 전국에 이렇게 많은 리틀 야구팀이 있고 이렇게 열정 넘치는 아이들이 많다니!”

“나도 야구를 볼 줄만 알지 이런 세계가 있는지는 몰랐어. 애가 운동을 하니 우리도 이런 걸 배운다.”

2024년 전국 리틀 야구 시즌이 끝나고 폭설이 내려 야구화가 눈속에 푹푹 빠지는 겨울방학에도 아들은 매일 훈련을 나갔고 올해도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선수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욱 새롭게 성장할

2025년을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외야 플라잉볼 수비 훈련을 하다가 날아오는 공에 맞아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했어요. 내일 퇴원하는데 당장은 운동도 할 수 없고 일상생활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술받고 마취에서 깨면서 아이도 많이 아팠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나, 다시 운동하다가 다치면 또 수술받는 건 힘들 것 같아” 하더군요.

처음 다친 거니까 그동안 안전하게 잘 해왔다고 이만큼 야구를 한 것도 대단하다고 다시 야구를 한다면 잘 극복하는 것이고 야구를 하지 않아도 무엇이든 다시 잘할 수 있다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야구 훈련 따라다니느라 가지 못했던 광주 홈구장으로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남편과 아들이 지난해 우승한 기아타이거즈 팬이거든요.

아들 덕분에 지난 1년 우리 부부는 생각도 못 한 경험을 했고 함께 꿈꾸며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11살 소년이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야구가 아니어도 운동이든 다른 배움이든 무엇을 선택하든 야구를 배우며 성장한 지난 시간을 디딤돌 삼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봄, 무엇을 시작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Letter 04

모두를 위한 기도

김명애 | 경북 포항시

지 난가를 경기도에 사는 딸내미가 서울의 한 병원에 취직하면서 그간 고등학교 친구와 동거하던 집을 정리하고 서울의 어느 오피스텔로 이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도 구경하고 오랜만에 딸 얼굴도 볼 겸 저는 남편과 함께 2박 3일로 서울 여행을 갔어요.

첫째 날 금요일에는 딸이 모처럼 엄마 아빠가 왔다고 한껏 들떠서는 한강공원에 가서 유람선을 태워주더라고요. 또 늘 TV에서만 보던 국회의사당도 구경시켜 주고 저녁에는 서울숲을 거닐다가 맛있는 저녁을 얻어먹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쓴 눈치였어요.

둘째 날 토요일에는 딸이 병원에 출근해야 해서 저희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딸아이는 “엄마, 음식하는 거 좋아하잖아. 여기 근처에 봉녕사가 있는데 거기서 사찰 음식 행사를 한테요. 아빠랑 한 번 가봐. 내가 가는 방법도 카톡으로 다 보내놨어. 알겠지?”

그러면서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몇 번이나 봉녕사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날씨도 청명하고 가을 햇살 받으며 산길을 걸어가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봉녕사에서는 여러 전시도 열려 있었고 먹거리도 다양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 있었어요.

남편은 혼자서도 잘 다니는 성격이라 이곳저곳 둘러보고 싶다길래 저희 부부는 잠시 짝어지기로 하고 저는 한 스님께서 진행하시는 차명상 체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다도를 배워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내어진 차를 마시기 전 눈을 감고 차를 준비하고 우려내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허공에다 손짓을 하는데 꼭 실제로 차를 내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후에 차를 한 잔 들이켜니 참 좋았습니다.

명상 마지막에 스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집중해 보면서 두 팔로 스스로를 껴안고 “나를 사랑한다” 말해보라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렸어요.

스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딱 두 분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며 먼저 한 아주머니를 지목해 마이크를 건네시더라고요. 그분은 60대쯤으로 보이셨는데 암 수술을 받았는데도 재발이 되어서 곧 재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차 명상을 하고 나니 병마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며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아주머니의 말씀을 다 듣고 스님께서는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발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 달라고 하시더군요. 아무도 나서지 않고 쭈뼛대기에 제가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곤 약간 울먹이는 목소리로 차근차근 말했지요.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왔습니다. 딸내미가 이사하게 되어 겸사겸사 놀러 왔어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족들 기도로 나이, 이름, 얼굴을 하나 하나 떠올리며 남편, 아들, 며느리, 딸, 손주 모두의 건강을 빌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그것들이 다 잘 풀리기를 몸과 마음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들이 타고 다니는 차 번호를 외워요. 남편 차는 ‘37노0000’, 아들 차는 ‘45마0000’...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이 안전한 운전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피해를 받지도 않고 좋은 일이 생기는 곳으로 많이 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지 벌써 26년 차가 되는데 새벽에 눈 뜨자마자 출근하면서 마지막으로 급식실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세 번 기도하는데요. 오늘 하루도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음식들이 안전하게 조리되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기를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모두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급식실에서 만든 음식들이 간이 잘 맞고 맛이 좋아서 그 음식을 먹는 모든 사람이 오늘 하루도 몸과 마음이 평안하길 빌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도 그러기를 기원하지요. 가끔 절 같은 곳에 가면 앞서 말한 것들을 빌기도 하지만 제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저 모든 분의 소원도 이루어지길 같이 기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님이 차 명상 도중에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해 보라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마음을 바치느라 정작 나를 위해서는 마음을 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스님께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앞으로는 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잘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구석 의자에 앉아 사람들이 빠져나가길 기다리고 있는데 쪽 나가는 행렬 중에 한 70대쯤으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늘 우리 가족, 나만을 위해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고마워요.”

저는 평소에도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많은 기도를 올립니다. 구급차가 소리 내어 지나가면 저 안에 타고 있을 환자분이 많이 아프시지 않길 기도하고, 병원 앞을 지나갈 때는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이 빨리 쾌유하길, 또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하지요. 누구 차를 얻어 탈 때면 운전자가 안전 운행하길 기도하고 큰 트럭을 마주할 때면 기사님들의 하루가 너무 고되질 않길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당당이님이 몸과 마음이 평안해서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Letter 05

꿈에 찾아오는 엄마

류일복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창 문에 발그레 햇빛이 비쳐 들어서야 늦잠에서 깹습니다. 잠을 설쳐서인지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간밤에 엄마를 보아서일까? 손으로 눈으로 온몸으로 말하시던 엄마. 부엌에 앉아 불을 지피는 빨강계 달아오른 얼굴 옆모습, 딸나무 수레에 앉아 오다가 낙상해 이마에 길게 남은 상처 자국, 언제나 따스한 미소가 넘치는 그윽한 눈매며 일손으로 거칠던 손이며 잘 그려진 삽화처럼 꿈속에서 엄마의 모습은 뚜렷이 소묘됩니다.

곧 꿈은 깨어지고 행복했던 순간은 안개처럼 사라지면서 냉정한 현실이 그 자리를 메웁니다. 엄마가 이남밖에 하얀 쌀을 일던 가마목은 썰렁한 그대로입니다. 그 시절 여자 없이 사는 우리 집이 걱정스러워 엄마는 막내아들의 꿈에나마 다녀가셨나 봅니다.

나는 주방장이 되어 바빠 주방에 섭니다. 엄마가 보는 부엌 아궁

이가 아닌 전기밥솥에 밥을 하려고 소매를 맡아 올립니다. 번철이 달아오르는군요. 기름을 흘려 넣는데 병 밖으로 기름방울이 대롱거리는 걸 혀끝으로 살짝 훔치며 생각합니다. ‘엄마도 우리 몰래 이러셨겠지?’ 지금은 기름 한 방울쯤 아낄 때가 아니지만 엄마가 겹쳐지는 풍경에는 마음이 짙 서글퍼집니다.

엄마가 돌아간 지 1년 정도 되던 해 나이 지긋한 아줌마 한 분이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나는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폭포수 같은 머리라든가 화장기 있는 얼굴이라든가 눈에 쑥 띄는 화려한 옷차림이라든가 하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복이야, 나야 나. 코흘리개 누나.”

“아! 누나구먼요.”

15여 년 전 이웃집에 살다가 시집을 간 누나였습니다. ‘누나가 갑자기 여기 왜?’ 의아함을 감추지 못한 채 그녀를 쳐다보는데 코밑이 빨갛게 물든 누나가 답합니다.

“너 엄마 소식은 일찍 들었는데 와 본다 와 본다 하면서 이제 왔네. 사람 사는 일이란 게 다 그래야. 네 엄마한테 받은 인정 빛을 갚을 날이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얼굴이 어두워지던 그녀는 쓸쓸히 말을 잊지 못한 채 팔을 건너나를 밀어내고 주방 일을 보아줍니다.

“너 엄마도 너 장가나 보내놓고 가지지.”

빨간 립스틱을 바른 그녀의 입에서 엄마와의 정 깊은 옛 추억이 끝없는 냇두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녀는 ‘분이’라는 고운 이름이 있었지만 시도 때도 없이 흘쩍이는 콧물 때문에 동네서 코흘리개 여자애라고 더 많이 불렸습니다. 그녀의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자 또래 처녀애들은 그녀를 많이 깔보았고

약자인 사람끼리는 서로를 알아보고 빨리 가까워지는 법. 그녀는 윗집 사는 나의 엄마에게 많이 의지했고 엄마는 그런 누나를 두둔해 주며 고명딸처럼 가까이서 돌봐주었습니다.

그녀의 콧병은 쉬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약을 살 돈이 없던 엄마는 민간요법으로 산과 들을 누비며 약초를 캐다가 달인 물을 그녀에게 마시게 하거나 잎과 마른 줄기를 불에 태워 연기를 콧구멍을 쏘이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좀 차도를 보이던 콧병은 초겨울만 되면 다시 도돌이표였고 어느덧 시집갈 나이가 된 누나는 또래 친구들은 다 가는데 자기만 시집을 못 가게 생겼으며 구석에 숨어 훌쩍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병을 고치라며 혼처를 알아봐 주었고 인근에 사는 할머니가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홀아비를 소개해 주어 엄마가 여러모로 알아본 끝에 누나와 혼사를 성사시켰지요. 분이 누나 말마따나 엄마는 동네가 인정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생각나는 것은 ‘스웨터’입니다. 내 고향 연변의 겨울은 정말 살을 에는 듯 추웠죠. 중학교 졸업할 나이가 되어서 형님들이 입던 헐렁하고 넓은 적삼만 입는 것이 내키지 않아서 겨울만 되면 엄마께 양탈을 부렸습니다. 엄마는 ‘다음 해는 꼭 떠줘야지~’ 하면서 ‘손말’로 대답하곤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집 궁한 사정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철이 늦게 든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에게 알망곳게 징징거렸고 엄마는 해마다 실꾸리들을 조금씩 얻어 들고 모았습니다. 마침내 알락달락 줄무늬가 있는 따뜻한 털실 적삼을 뜨기 시작하셨을 때 나는 ‘언제 그 적삼을 입나~’ 엄마 옆에서 지켜보며 재촉

했습니다. 그 적삼을 입고 보란 듯이 친구들 앞에서 자랑도 하고 소녀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리라 생각했더랬죠.

하지만 세상일은 아무도 예상 못 한다고 했지요. 채 뜨다만 스웨터를 왼팔 한쪽만 남겨둔 채 엄마는 약 한 알, 주사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뇌출혈로 하늘나라로 직행했습니다. 엄마도 이 막내아들이 겨울 추위에 추울까 봐 걱정되어 종종 꿈에 찾아오시지요. 괜히 엄마를 편히 쉬게도 못하고 나는 왜 그렇게 출랑됐는지 스스로가 지지리도 밋고 후회됩니다.

홀쩍 자란 나는 내 맘 같은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서로 많이 가까워졌을 무렵 나는 외팔 잃은 스웨터를 조용히 꺼내 그녀 앞에 펼쳐놓았지요. 그리고 구구절절 ‘손말’을 하시던 엄마 이야기를 하는 동안 스스로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의 미완성 유품을 그대로 갖고 있는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축축이 맺혔습니다. 나는 내 삶에 공감하는 그녀와 평생을 해도 되겠다는 용기를 얻었고 구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내가 함께 만들어준 스웨터를 낚아서 더는 입을 수 없을 때까지 나는 해마다 겨울을 기다리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지도 30여 년이 되어가네요. 꽃샘추위가 고향 뒷산에 훑고 지나가면 만개하는 진달래꽃을 예뻐하고 사랑하던 엄마를 위해 꽃 한 묶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애잔하게 꿈에 가끔 마실 다녀가시던 엄마가 오늘 밤은 나를 바람 맞힐 것 같습니다. 기억 속 코흘리개 누나 그리고 스웨터를 짜준 아내가 곁에 있어서 아마도 오늘 밤은 엄마가 밧 뺀고 편하게 주무시리라 믿습니다. 눈으로 손으로 온몸으로 말하시던 엄마, 우리 엄마.

Letter 06

문화가 있는 나들이

한필수 |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저는 충남 서천이 처가로 네 사위 중 셋째 사위입니다. 첫째 형님은 일산에 둘째 형님은 의왕에 막내 동서는 분당에 다들 수도권에 터를 잡았는데 저만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 세 동서는 툭 하면 시골에 가자면서 제가 사는 원주로 물려옵니다. 며칠 전에도 둘째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주 동서, 이번에도 동서네 집으로 모이자고 야단들이네. 어찌지?”

자주 방문하는 미안함 때문일까 다소 겸연쩍게 말을 꺼내시는 거 같았어요.

“오시면 되지요. 저도 형님들과 막내 동서 만나면 좋은데요.”

“그렇지. 우리 가면 되지?”

“아~ 예~ 그럼요.”



장모님께서 살아계실 때만 하더라도 주로 차가에서 모였었는데 그 분께서 돌아가시고 나니 명절마다 원주에서 지내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 동서시간에 사이가 좋은지라 자주 만나서 어울리고 김장도 같이하는 편이지요.

누가 먼저 제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일 때마다 가까운 문화유적지를 찾습니다. 지난해에는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의 청령포에 다녀왔고 그다음 명절에는 오대산 월정사의 선재길을 걸어 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둘러봤지요. 이런 날들을 위해 언제나 한 번 써먹을까 싶어 숲 해설사와 관광문화해설사 자격증까지 따낸 저였습니다.

올해에도 조상님께 차례를 마친 동서 부부들이 다 모였습니다. 네 동서가 한방을 쓰고 네 자매가 또 다른 방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는데도 순서를 기다려야 하고 얼굴 씻는 일도 번

거로울 테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는 게 동서지간이고 자매지간
인가 봅니다.

그날은 얼마 전 복원을 마친 국보 제101호로 지정된 지광국사탑을
보기 위해 부론으로 향했습니다. 40여 분이면 닿는 가까운 거리에
법천사지가 있습니다. 강 언덕을 달리는데 막내 동서가 한 마디 툭 던
집니다.

“형님, 지금도 평창강에 물고기가 있을까요?”

똥판지같은 질문입니다.

“물고기 없는 강이 어디 있겠어. 왜 물고기 잡게?”

작년 여름 휴가철에 원주 왔을 때 족대로 물고기 잡던 기억이 떠올
랐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족대질 할 수 있을까요?”

세상 물정에 둔한 막내 동서의 엉뚱한 질문입니다.

“동서, 겨울에 물고기 잡으려다 사람 먼저 잡겠다. 누가 먼저 얼어
버리는지 한번 해 볼까?”

까르르~ 차 안은 또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섬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합수머리로 겨울 안개가 뽀얗게 피어오릅
니다.

“야~ 다들 저 안개 좀 보세요.”

“여기가 남한강이지. 이렇게 멋진 안개는 처음 보는데.”

“두물머리의 안개보다 더 멋있는 거 같아요.”

재색 빌딩과 아파트 건물만 바라보던 이들로서는 강 언덕의 아침
안개는 새로운 세상이요 상큼한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차를 세우고
남한강에 드리운 겨울 안개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드넓은 법천사지의 초입에 있는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 도착했을

땀 거대한 지광국사탑이 단박에 시선을 압도했지요. 관광문화해설사님께 해박한 해설을 부탁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탑은 고려시대의 조각품으로 예술성이 뛰어난 사리탑입니다. 지광국사탑은 원래부터 이곳 법천사에 있었는데 너무나도 뛰어난 석조 조각품이다 보니 ‘미인박복’이라고 일본 사람이 탑을 몰래 서울로 옮겼다가 바다 건너 일본 오사카로 건너갔었고 다시 서울의 경복궁 경내로 돌아오는 등의 고초를 겪었습니다. 6.25 전쟁은 이 탑의 상흔을 더 깊게 만들고 말지요. 갓은 수난을 거쳐 2016년에 이르러서야 원래 있던 장소인 원주의 법천사지로 돌아오게 되고 8년 동안의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 작년 12월에 복원을 마치고 우리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지광국사탑입니다. 용 문양부터 연꽃, 상여, 신선, 봉황, 보살 등 층층이 새겨 넣은 문양은 볼수록 감동이고 감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광국사는 고려시대에 원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와~ 오~ 와~”

다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탄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광국사가 그 옛날 원주 사람이었다고요. 진짜 이걸 뭐 예술이네요. 형님.”

“미술 전공한 우리 처제, 어때 감상평 한마디 하시지?”

“그저 감탄이고 감동입니다.”

법천사지를 나서면 거둔사지까지 이어지는 원주 ‘굽이길’ 10코스가 있습니다. 논두렁과 밭둑도 만나는 5킬로미터의 천년사지 길이지요. 걸으면서 목상을 합니다. 소홀했던 시간은 없었는지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이번에도 모두가 모이면 야트막한 고개를 걸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Letter 07

눈물이 납니다

박치송 |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는 9년 동안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 64세 남자입니다. 주간보호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신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요양보호사로서 어느 때보다도 자부심을 갖고 어르신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도 64살이니까 어디 가서 젊은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요. 하지만 제가 모시고 계신 어르신들 앞에서는 마냥 철없는 아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낮잠을 주무시는 데 필요한 이불 빨래를 하는 날입니다. 빨래를 하고는 이불을 가방에 담아서 양쪽 어깨에 걸고 센터에 들어가려는데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한 여인이 보입니다. 그녀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달려오더니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흐느껴 울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주머니에 뭘가를 넣어주시는데 그것은 돈봉투였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다시 꺼내서 마다했는데 여자분 울음소리는 더 커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통곡에 가까워지더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봉투를 정중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센터에 들어와서 바로 팀장님한테 사정을 말씀드리고 어르신들 간식 드시는 데 보태서 쓰시라고 드렸지요.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기 센터에 다니던 어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더 이상 감당이 어렵게 되자 다른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제가 아는 어르신이더라고요.

제가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할 때쯤 되면 그 어르신께서는 귀신 같이 저를 따라 나오셨는데 그러면 어르신과 딸싸움이 시작됩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서 또 어느 때는 딸이 아파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에 가야 된다고 센터를 내보내달라며 저를 못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 역시 요리조리 핑계 대기 시작하지요.

“어르신, 저는 지금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 사시는 계산동 가는 차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도 핑계를 대다 보니까 잘 먹히질 않더라고요. 결국 최근에는 그 따님분께 전화를 걸어 어르신을 안정시켜드릴 것을 몇 번 부탁드렸습니다. 따님 목소리를 들으면 조금 진정하셨거든요. 그러다 어르신께서 저에게 우리 딸을 어떻게 아느냐고 신기한 듯이 물어보시면 또다시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 댁 옆집에 살았었잖아요.”

따님분 성함을 친한 여동생 부르듯이 불러가며 어렸을 때 동네에



서 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래서 잘 아는 사이라고 말씀드리면 동네 총각을 만났다는 듯이 편안해하며 안마의자에 살며시 누워서 주무시지요.

이런 어머니를 이제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는데 그간 센터에서 고생한 저를 보니 너무나도 어머니 생각에 설움이 복받치고 제게 고통을 느끼셨던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어느 요양원에 모셔졌는지 한 번이라도 찾아가 절이라도 올리고 싶지만 사실상 그러기가 그리 쉽지 않은 입장인데요. 지인들도 제 얘기를 듣더니 그간 최선을 다해 모셨으면 되었다, 더 이상 하는 건 오버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르신께서 구십을 넘으셨지만 생을 다하는 날까지 정말 평안하시기를 빌어봅니다.

Letter 08

아버지의 수요일 친구

박옥산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로

아버지는 88세, 아버지를 좋아하시는 그 교수님은 95세.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을 제가 아는지라 아버지 찾아뵈러 갈 적이면 슬쩍 따라간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가 혹여 넘어지시면 어쩌나, 음식 드시며 반주로 드시는 것이 행여 과해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따라가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근처에 일이 있으유. 걱정하지 마셔유. 아버지는 진지 잘 드시면 되겠네유.”

비척비척 식당 안으로 들어가시는 아버지보다 한참을 더 비척거리며 들어가는 분이 계셨으니 바로 아버지의 절친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신다는 95세의 어르신입니다. 아버지와 뜻이 맞고 마음이 맞아 문학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한 지 어언 40년 됐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자제분이 어찌 사는지도 알고 있을 정도로 아버지는 그분 이

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아흔 넘으신 분이 걸어 들어가시는 식당 안의 정경은 아주 재미집니다.

“아, 이 사람아~ 한 번 정도는 내가 내야지. 가만있어봐.”

95세의 어르신이 당신이 돈을 내겠다고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러지 말라면서 아버지가 아예 종업원의 손에 오만 원을 쥐여 주 시려는 장면. 티격태격하시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보기 좋아요.

“아~ 아흔 돼서 말이지.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안 되겠어? 난 자네만 있으면 쓰네.”

아버지더러 자네라고 하시는 어르신은 아버지가 종종 여행을 가시면 풀이 죽는다고 하신답니다.

“그러면 아버지, 그 어르신 모시고 같이 갈까요?”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다가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무릎 아파서 겨우 걷는 양반을 모시고 어딜 간단 말이나. 자녀들도 그렇게 안 하는 것을 우리 딸이 수고할 필요 없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밥 먹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버지도 그게 좋다.”

이러시니 같이 모시고 갈 수는 없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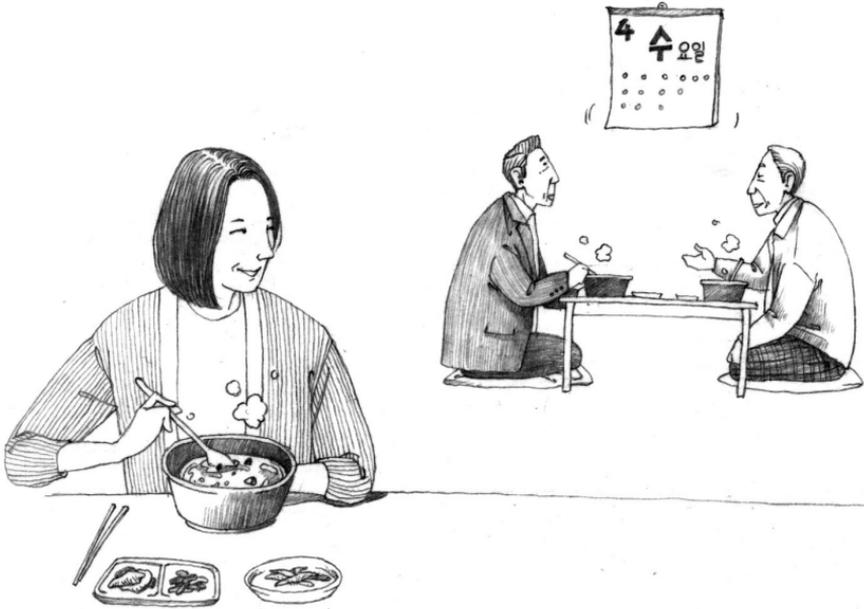
이번 3박 4일의 일본 여행 중에서도 아버지는 시간 되면 와이파이 존으로 들어가서 어르신과 대화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았어요. ‘뚝뚝’ 문자 보내는 소리가 들리고 혼자 슬쩍슬쩍 웃기도 하며 툭 메시지를 주고받으시는 모습 속에 진한 우정이 보입니다.

“야~ 손등이랑 어깨에 붙일 만한 큰 놈 파스 안 있냐? 그것 좀 너 녀하게 사 봐라이.”

그러며 엔화를 건네십니다.

“아버지, 언제 환전하셨어요? 저에게 있는데 말이지요.”

“내 돈으로 사야 그게 선물이지. 딸 돈으로 사면 못써야.”



아버지가 돌아서서 또 웃으시는 것이 아마도 어르신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파스도 넉넉하게 샀고 젤리도 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기 말이여, 소주 좀 사봐. 여그 아버지 돈 있음께” 이러시는데 어르신에게 싸구려 술은 안 될 일이지 고급술을 사 가야 할 텐데요. 슈퍼마켓에 가서 번역기를 돌려 가장 좋은 품질의 정종 좀 보여 달라고 하였던니 제일 좋은 술이라 해서 그것도 샀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레 양말로 싸고 또 수건으로 싸고 마지막으로 제겨울 여벌 옷으로도 싸서 고이 모셔 왔습니다.

“어~ 좋다. 그 양반이 반주로 딱 두 잔 마시고 말이여 비틀비틀하는 찰나에 아버지가 밥값 냈다. 그 양반 혼자 살면서 내 없으면 심심

하실 판인데 오니까 반가운지 말이어 또 종업원에게 오만 원 쥐여주면서 ‘저 양반 돈 받지 말아요. 알았어요?’ 하는 거야. 약주가 아주 좋았던 모양이야.”

아버지와 아버지를 최고로 좋은 친구로 아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전직 교수님이 부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교수님 말고 사실 다른 지인분이 많아서 월요일 한 번, 수요일 점심저녁, 금요일 점심, 토요일 점심 이렇게 정해놓고 만나는 일정을 제가 다 기억합니다. 그분은 바로 정중앙의 수요일 점심에 만나는 분이시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빌려서 설명해 드리자면 수요일에 만나는 식당에 홀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교수님의 수준과 좀 맞을 성싶습니다. 추어탕 한 그릇 시켜놓고 책을 보신다네요. 아버지가 유심히 보셨다는데 요즘 유행하는 한강 작가님의 책도 읽는 것 같고 때론 도서관 바코드가 찍힌 책을 들고 오기도 하는 것이 도서관에 자주 가시는 것 같아 보여 슬쩍 나이를 물었더니 92세라 하셨다네요.

“우리 수준하고 딱 맞아보여야. 나보다 교수님이 특히 더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이 암만해도 조만간 곧 합류할 것 같기도 허다야. 내가 유월에 손주 놈 결혼식 보려고 호주 갈 적에 말이어 교수님 보름 이상을 나 없이 혼자 있으려면 심심할 틈디. 그 양반 벗 삼아주면 쓰겠어.”

“잘됐네요, 아버지. 둘보다는 셋이 좀 나아 보이긴 해유.”

그렇게 듣고 나서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세 분이 비척비척 식당 안으로 들어가 서로 오만 원권을 쥐어 들고 종업원에게 받으라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입니다. 잘 된 것 같아요. 세 분이 독서토론 하시는 건 아닐지 기대가 됩니다.

Letter 09

아들의 소원

구정화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최 근에 이용 중이던 TV 인터넷 계약이 종료되어 타 회사로 새로 갈아타면서 설치 예약이 늦어져 3일 동안 반강제적으로 휴대폰과 TV를 못 보게 됐어요. 늘 집에 오면 자동으로 켜놓던 TV도 안 나오고 인터넷 와이파이도 안되니 휴대폰도 못 하게 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적막하고 조용해서 라디오를 틀어 놓았어요. 보통 차로 이동하며 듣던 라디오를 집에서 들으니 심심하던 차에 애들이 나름 재밌어하고 귀 기울여 듣더라고요.

엄마도 예전엔 라디오 방송국에 사연을 적어 보내서 방송도 되고 선물도 받은 적 있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우리 둘째가 완전히 꽃혀서 본인도 사연을 써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한 번씩 사연 보내는 거 물어본지라 그러라고 했죠. 어차피 안 할 거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애가 어떤 내용으로 적을지 어떻게 쓸지 진심으로 고민하더니 평소 일기든 독후감이든 글자 쓰는 걸 칠색 팔색을 하며 세 줄도 겨우 쓰던 요 상남자 초등 4학년 아이가 정말 제대로 길게 줄줄 적는 거예요.

“볼펜으로 적을까? 근데 틀리면 어떡해?”

“아, 그냥 연필로 적어야겠다.”

“줄 빼뿔빼뿔하면 어떡하지?”

“엄마가 종이에 줄 그어줘.”

“노래 안 틀어주면 어떡해?”

“그럼 어쩔 수 없지.”

“애들이 내 이름 다 들으면 어떡하지?”

“익명으로 해도 돼?”

만화책만 겨우 읽어드는 이 아이가 익명이란 단어를 알다니요. 초등학교 4학년이 익명을 어찌 아나 싶어 되물으니 자기 반에서 익명으로 마니토 쪽지 적은 적이 있어 아는데 자길 무시하느냐고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여러 자문자답을 하며 적어놓은 걸 고쳐보고 다시 반듯한 글씨체로 A4용지에 옮겨 적는데 애가 이렇게 제대로 뭔가를 적은 적이 처음이고 또 진심으로 사연을 보낸다는 사실에 온 가족이 너무 놀라며 기특해했답니다.

본인이 적은 글이 라디오를 통해 나오게 된다면 온 국민들이 다 듣게 되어 아마도 연예인급이 되는 줄 아나 봐요. 우리 아들 인생 최고의 글씨체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간 아직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천진난만한 우리 아들의 소원 한 번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4 남학생입니다

(저번편때워서 익명으로 보내주세요) 저는 원래 라디오를 들으니까 많이 없는데 이번엔 +V 인터넷 약정이 끝나서 새로 바뀌어야 해서 지금 +V가 안나와요 그래서 요즘 낮에 라디오를 많이 듣게 됐어요 사연을 들을 때 마다 제가 보낸 사연이면 좋은 거 같아 어떤 사연은 보낼지 생각하다가 이 사연으로 보냅니다. 전 지금 키가 151cm 인데 또래들보다 큰편이죠? 하지만 저보다 작았던 아이들이 저의 키를 따라 잡고 있습니다. 전 많이 안크고 친구들은 폭풍성장을 하는데 키가 더 컸으면 하늘 바람인데 따라 잡힐까봐 두렵습니다 생각해 보니 키가 크려고 노력을 안한 거 같아요 여섯살 때 축구를 많이 했는데 요즘 많이 안해서 그런 거 같아요 쓰다 보니 저가 노력을 안한 거 같아 부끄럽네요 제가 이걸 보내면 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시 강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고신정곡을 틀어 주신다 하는데 도경수에 고신정곡아도 고신정곡아를 틀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감사합니다 😊

2025년 1월 7일 최유익서

Letter 10

나이 든 천사

이미경 | 인천광역시 계양구

우리 딸은 나이 든 천사입니다. 우리 딸은 사회생활을 잘 못합니다. 아니 사회생활을 포기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대학도 나왔고 중국 유학도 다녀왔죠. 그래서 취직하고 돈 벌어서 시집도 가고 혜택받지 못한 엄마 아빠에게 도움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하루는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사회생활이 안 맞나 봐. 너무너무 안 맞나 봐.”

그러더니 한 달 만에 회사에 사표를 내고 “엄마, 나는 제빵이 잘 맞나 봐. 빵 말이야, 빵!” 하더니 온 집안을 밀가루로 도배를 합니다. 그래 놓고 시험에는 미끄러졌습니다. 그럼에도 깨끗한 딸!

얼마 뒤에는 “엄마, 나는 한식이 맞나 봐. 한국 사람은 역시 잡채지 잡채. 나는 한식 요리사로 가야겠어!” 이러더니 한식조리사 자격시험 실기에서 마늘만 다지다가 떨어져 버렸죠. 그래도 여전히 깨끗한 딸!

“엄마, 이게 마지막인데 난 몸으로 하는 일보다 공부가 맞나 봐. 나, 공무원 될 거야. 그래서 든든한 딸이 되어 엄마 아빠 용돈 드릴게.”

딸은 이렇게 말하고는 방에 처박혀 1년을 어마어마한 책더미에 깔려 지내더니 시험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래도 꾀꿉한 딸!

“아냐 아냐, 이 길이 아닌가 봐. 다른 길을 찾아야겠어.”

그러는 동안 시간이 흘러 대학 졸업한 지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루는 제가 물었죠.

“너는 대체 뭘 하나 꾸준히 하는 게 없냐?”

“엄마, 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도 돼요?”

“야, 어미가 나이 들어 관절염인데 널 뱃속에 넣고 뼈 부러질 일 있냐? 아직도 속이 그리 없냐? 애가 철들려면 아직도 멀었네.”

딸의 모습에 한숨도 많이 쉬었고 볼 때마다 답답하기도 하고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딸이 불도 안 켜놓고 자기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기 또 쇼하냐? 니 불도 안 키고 또 뭐 하려고 질질 짜고 그러는데? 와? 엄마한테 이제사 미안 나? 아이면 컨셉이냐? 아님, 이제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는 거냐?”

저는 정말 별 뜻 없이 말하며 딸을 흔들었는데 딸은 몇 시간을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고 눈물이 푹푹 떨어졌습니다. 딸은 저에게 외락 안겨 울어댔습니다.

“엄마, 나 앞으로 뭐하며 살지? 사실 사회생활 못해서 이것저것 했는데 뜻대로 안 되고 나 무서워서 세상을 어찌 살아?”

하늘에서 천둥치는 줄 알았습니다.

“무섭긴 모가 무섭노? 세상이 다 그런 기지. 뭐가 무서운데? 남들

다 다니는 회사 생활도 못하고 와 이리 우노? 니가 뭐가 모자르노? 니 앞에 이 어미가 있는데? 진정해라.”

“엄마 아빠가 돈 버는 거 힘들어하셔서 내가 어떻게든 회사생활 하려 했는데 그게 안 됐어. 회사만 가면 눈치 보이고 누가 뭐라 하면 상처받아서 밥도 못 먹고 종일 심장이 아파!”

순간 측은하기도 했지만 딸이 좀 강해졌으면 했습니다.

“사회라는 디가 다 그런 기다. 욕도 배불리 묵고 회사 화장실 문이 뽕개지도록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강해지는 기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엄마, 세상이 아름다우면 안 되니? 그냥 천사들처럼 착하게 살면 안 돼?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

순간 ‘헉, 우리 딸을 위해 유치원을 다시 알아봐야 하나?’ 싶더군요.

딸은 사회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고 10년이 다 되도록 이것저것 노력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니 세상이 더 무서워서 우울했고 답답했다 봅니다. 딸이 ‘자유로운 영혼’이라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딸은 남에게 욕 한 번 못 하고 남한테 상처 주는 말도 못하고 정말 남만 생각하는 나이 든 천사입니다. 아직은 엄마 아빠가 버틸 만하지만 언제쯤 자리 잡을지, 언제쯤 제 딸이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지 걱정입니다. 지금은 중국요리 배운다고 가스레인지가 기름 천지고 불향 난다고 워질하다가 머리카락이며 코까지 까져서 걱정입니다.

나이 든 딸이 천사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올까요? 저는 그래도 딸을 믿습니다. 버스도 종착역이 있듯이 우리 딸도 언젠가는 제 자리를 찾아가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 되어 저도 딸에게 들어간 자금도 좀 회수했으면 바라고 기다립니다.

Letter 11

제주도에서 만난 은인

이선녀 | 서울 도봉구 마들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좀 더 나은 변화와 발전을 기대했지만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은 한꺼번에 내 빈약한 인생 속으로 파고들었다. 대형 교통사고와 건강 문제 게다가 직장 문제까지 얹힌 데 덮친 격으로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자포자기의 끝자락까지 나를 몰고 갔다. 30년 세월 동안 여행 한 번 떠나지 못하고 치매 환자 돌보며 가장 노릇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잠시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긴 한숨만 토해냈다.

자신의 인생에 대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에너지가 바닥나서 더 이상 숨쉬기조차 어려울 것 같았다. 짧은 순간 사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다. 그리고 영영 돌아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어느새 제주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오랫동안 보일러도 켜지 않은 방안의 냉기와 뽁뽁 언 손에 볼펜도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겨우살이가 한편 서럽기도 하였다. 짐을 챙기면서 냉장고 속의 음식물도 대강 비워냈다. 옷가지와 소지품을 챙겨 바퀴 달린 커다란 가방에 포개 넣었다. 내가 사라져도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도 오랫동안 아무도 모를 것이다. 서글픔이 몰려왔다. 독거 중년의 고독은 뉴스에서도 다뤄지지 않을 애매한 사안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혼자 떠나는 첫 여행이 엄청난 부담과 두려움을 안겨 주었다. 겨우 비행기 표는 예매했는데 좌석 배치는 어찌하는지 어리둥절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아울러 두려움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었다. 떠나 본 적 없는 무지함이 나를 또 한 번 슬프게 했다. 그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지 다음 계획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행객들의 밝고 들뜬 모습과는 다르게 우울한 먹구름을 잔뜩 머리에 이고 떠나는 내 모습이 창가에 슬픈 표정으로 스쳤다. 거울을 마주하고 설 용기도 나지 않았던 얼마간의 시간. 시계 초침 소리도 귀에 거슬려 치워버리고 두꺼운 커튼을 드리우고 나만의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 소리 죽여 흐느끼다 잠든 나날들이 이륙하는 비행기의 굉음과 함께 구름 위에 파노라마를 그렸다.

아무런 감흥도 없이 공항에 내려 정처 없이 버스에 몸을 맡겼다. 한참을 달리다 약간의 멀미 증세를 느끼고 하차 벨을 눌렀다. 울렁증을 가라앉히고 들어간 곳은 짐질방이었다. 큼직한 가방을 끌고 들어오는 나를 신기한 듯 바라보는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시끄러움을 견딜 수 없어 다시 거리로 나섰다.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서서 방향도 모르는 노선

을 살피고 있었다.

“어디로 가세요? 여행 오셨나 봐요?”

버스 노선표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내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공항 방향 가려고요.”

“아, 공항 방향이면 같이 타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포근포근한 솜사탕 같았다. 아주머니는 서울에서 살다 제주에 내려온 지 7년 정도 되었는데 정년퇴직한 남편을 따라 내려와서 이제는 직장도 잡았다. 처음엔 텃새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는 이웃들과도 잘 어울린다고 하셨다.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버스가 도착했고 버스에 올랐다.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는 없었다.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아서인지 입술이 자꾸 바짝바짝 말라 따끔거렸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공항 근처에 구름다리나 도두봉이 있는데 시간 되면 잠시 구경해도 좋아요.”

아주머니는 내 눈치를 살피며 본인이 살면서 그동안 겪었던 인생사를 잠시 들려주셨다. 무슨 사연인지 초면이라 물을 수는 없지만 살다 보면 성난 파도와 같은 날도 있고 잔잔한 물무늬가 황홀해 보이는 날도 있다고 하셨다. 버스는 검은 돌담길을 따라 꼬불거리며 이어졌고 간간이 달덩이 같은 아주 커다란 굴이 달린 굴밭을 스쳐 지나기도 하였다. 아주머니는 출근길이라 다음에 내린다고 하며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무언가를 적어 주셨다.

“부담 느낄까 봐 연락처는 묻지 않을 테니 갈 곳이 딱히 없든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줘요. 직장에서 통화는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 우산 받아요. 객지에서 비 맞으면 더 처량해요. 제주는 항상 예고 없이 비가 자주 오는 곳이라서요.”



아주머니는 내 손에 연락처와 우산을 건네주고 버스에서 내리셨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주머니는 어느새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셨다. 그리고 버스가 출발하고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진눈깨비가 날리기 시작했다. 시리고 차가운 겨울바람과 낯선 도시의 어색한 긴장감. 이곳에 왜 왔는지 자신에게 나직이 그러나 무거운 질문을 던지며 공항 터미널에 도착했다.

시린 마음에 봄바람보다 훈기 있는 따사로움을 남기고 떠난 그분과의 만남이 꿈은 아니었는지 확인하듯 우산을 꼭 움켜쥐었다.

“내가 봄에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여행을 계획
을 다시 세우고 오면 숙식은 제공할 수 있어요. 봄이 얼마 남지 않았
잖아요. 제주 한 달살이 소개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는데 비용 걱정하
지 말고 우리 집에서 숙소 무료로 해 줄 테니 봄에 꼭 다시 와요.”

그분은 내 마음을 읽으셨는지 내가 거부하려는 나의 봄을 미리 준
비해 주셨다.

공항에서 누군가 예약 취소한 비행기 표를 사고 가슴속엔 그분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보물처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짓말처럼
떠난 제주 여행. 어느 곳도 구경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지만 내 가
슴속에 신선한 산소를 한가득 공급받고 건강하게 다녀온 여행이 다
행이라 생각한다.

제주의 어느 버스 정거장에서 만났던 분께 감사와 고마움을 여성
시대를 통해 전하며 칭찬의 글을 남기고 싶어 조금은 창피한 여행담
을 적고 있다. 세상엔 참으로 따뜻한 이웃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
을 몸소 체험하였고 축스러워 전화는 못 드리지만 내 부끄러움도 헤
아려 주실 것 같은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싶다는 소망을 여성
시대에 고백해 본다.

“인생 짧아요.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요. 힘든 순간은 더 행복한
시간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돈 벌
어서 넉넉하게 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맛난 거 드시러 봄에 오
세요.”

1시간여 달리는 버스 안에서 인생의 은인을 만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내 인생 혹독한 겨울의 마침표를 찍게 하고 내게 봄기운
을 예약해 주며 희망의 기다림을 안겨준 웬지 여성시대 당당이 일 것
같은 제주시 한경면에서 만난 그분께 이 고마움을 꼭 전하고 싶다.

Letter 12

남탕 청소

전영희 | 경기도 의정부시

저는 50대 중반의 직장 여성입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준비도 하고 고민도 많이들 하시죠? 저희 부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가끔 대화의 주제가 그쪽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덜컥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부동산 관련 투자를 덱석 해버려서 그 여파로 지금은 다달이 대출이자와 씨름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잘 알아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경제 흐름을 제대로 볼 줄 알아도 잘할까 말까인데 덱석 일을 저질러 놓은 남편이 원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당장 대출이자 갚아나가야 하는 짐을 남편에게만 지라고 하고 모른 척할 수도 없고요.

이런 답답함을 토로하려 작은언니를 만나 이러쿵저러쿵 하소연하는데 언니가 갑자기 “너희 퇴근 후엔 뭐해? 알바라도 해볼래?”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언니가 다니는 사우나에서 ‘남탕 청소 구한다’고 써 붙여 놓은 걸 봤다면 당장 사우나로 가서 알아보라는 겁니다. 일단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일이고 식당 서빙처럼 대면이 아닌 비대면 일이라 손님들 다 나간 후에 하니 좋지 않냐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대로 전했고 남편은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었기에 그날 저녁에 바로 가겠노라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말주변도 없고 집안 화장실 청소도 잘하지 못하는 위인임을 아는지라 혼자 보내기에 미덥지 않아 그날 저녁 제가 따라나섰습니다. 말이라도 거들어 채용되게 하려고요.

우선 여차하면 오늘부터라도 일할 태세로 아예 청소엔 편한 복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사우나 사장님은 제 예상대로 “오늘부터 할 수 있으면 하라” 하셨고 따라간 저에게 덤으로 “사우나 홀 청소도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하셔서 우리 부부는 단번에 청소일에 채용되었습니다.

더불어 심적으로 한시름 놓게 되었지요. 남자 목욕탕이라 여탕보다 의자, 바가지, 대야 등이 적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남편이 바닥 솔질을 시작하면 저는 수도꼭지와 거울, 바가지 등을 닦고 물 뿌리면서 힘을 합쳤어요.

일을 시작하고 처음 한 달 동안은 익숙지 않은 일을 하느라 몸도 마음도 아주 힘들었지만 물질적으로 보탬이 되기에 대출이자 압박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위로 삼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몸으로 하는 일을 우리 둘 다 안 해본지라 퇴근하고 저녁밥 먹고 사우나 청소하고 집에 와서 자고 또 직장 출근하고 이런 생활 패턴을 이어가니 마음에 여유가 없고 서로 말수도 줄어들고 힘든 시기임을 알기에 서로 딱히 말은 안 하지만 남편이나 저나 근근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오게 되었나?’ 생각하니 화살은 또 남편에게 날아가고 몸이 힘든 날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이 일을 맞닥뜨리기 전에는 박봉이어도 제 생활에 나름대로 만족감이 있었고 저녁 시간에는 운동도 하고 저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에 이런 상황에 빠뜨린 남편에게 말은 안 해도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저는 차차 깨닫게 되었어요. ‘감사하며 살자!’ 미움, 원망, 이런 마음이 제 몸을 더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하자 ‘감사하자. 그저 감사하자,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나’ 싶어지며 원망하는 마음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인생에서 부부란 호수 위에서 한 배를 타고 노 저어 나가는 일인데 ‘나는 힘드니 너만 노를 저어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혼돈의 시간이 몇 달 지난 지금은 일에도 익숙해졌고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 추우면 추운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오며 가며 돌이 손잡고 씩씩하게 청소하러 다닙니다. ‘모든 게 그저 감사하다’ 여기며 말이지요.

눈이 와서 빙판길이어도 남편이 잡아주어 안 미끄러지고 혼자 하면 힘든 일도 같이하니 다행입니다. 인생이란 게 별거 없지요.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다 싶네요. 오늘도 개운하게 청소하고 샤워하고 따뜻한 집으로 고고! 이 모습이 요즘 저의 소소한 행복이랍니다.

Letter 13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김유민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칠 순을 넘기신 아버지의 젊은 시절 취미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은 조금이라도 더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그 옛날 연극영화학을 전공할 정도였죠. 당시엔 보급용 카메라도 흔하지 않던 때라 그런 아버지를 ‘판따라’ 취급하던 사람도 많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어무이, 내 이거 짐 안하믄 늙어가꼬 디질 때까지 후회할까다.”

과목했던 아버지가 할머니의 말씀을 거역하신 건 대학교 진학할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일찍이 남편을 병으로 여의고 무녀독남 아들을 뒷바라지하던 할머니께선 아들의 고집스러운 진로 결정에 사흘 밤낮을 앓아누우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또한 그 길이 아니면 진학하지 않겠다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고 결국 할머니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으셨죠.

그 후 아버지는 그토록 염원하던 학과에 진학하여 좋아하는 사진

을 마음껏 찍으셨답니다. 처음엔 그러다 말겠지 싶던 할머니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아버지를 지켜보시곤 곧 든든한 지원자로 포지션을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아버지 인생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신 겁니다. 그것도 아들에게 선물 받은 금반지를 육교 밑으로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것을 주우러 가시다가 버스에 치여 돌아가신 겁니다.

이 모든 게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라 저는 모든 이야기를 아버지를 통해서만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가 애처롭게 쓰다듬는 액자 속에서만 할머니를 뵈 수 있었죠.

굳게 다문 입술, 긴장한 미간. 그런데도 아들이 찍어주는 사진이라며 곱게 단장하시고 희미하게 웃는 할머니의 모습. 그 사진이 할머니의 영정 사진이 되리라곤 그때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겠지요.

그 뒤 아버지의 인생은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사진작가와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꿈 사이에서 갈등하던 아버지는 전공과 전혀 관련 없는 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빨리 결혼하라고 성화였던 할머니의 말씀을 유언처럼 느끼신 건지 반쯤 예술가처럼 지내던 분이 안정적인 미래를 추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을 보셨죠. 그렇게 평생의 반려자가 될 저의 어머니를 만나 단 세 번 만에 결혼하셨습니다.

그 후 가장이 된 아버지는 취미보다는 당장의 생계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진 명소를 찾아 방방곡곡 누비던 나 홀로 여행은 처자식과 함께하는 가족여행이 되었고 서재를 장식하던 앨범들은 밤마다 자녀들에게 읽어주는 동화책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조금 더 안정적인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셨고 여느 부모님처럼 밤낮없이 일에 매진하셨죠. 하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도 불행은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IMF가 터졌고 잘나가던 아버지의 사업은 자금난에 시달렸고 설상가상으로 가족같이 생각했던 부하 직원의 횡령, 사기가 이어지면서 가세는 점점 기울어졌습니다. 부도가 난 회사는 큰 빛을 남겼고 드라마에서만 보던 빚쟁이들이 밤낮으로 전화를 걸거나 찾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생활이 궁핍해져 언니의 등록금마저 걱정될 상황에 이르자 아버지는 보물처럼 아끼던 카메라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속상해하던 어머니를 달래주며 “괜찮다. 사진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시 사면 된다” 그러시며 쓴웃음 짓던 아버지의 모습이 여전히 가슴에 박혀있습니다.

어린 저에게도 그 시간은 참으로 혹독하게 기억됩니다. 처음엔 카메라를 팔던 아버지가 다음번엔 사진집을 팔았고 그 다음엔 집안의 가재도구를 팔다가 나중에 집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집안일 외엔 해본 적 없던 어머니 역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봉투 붙이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공장의 분류 업무, 마트 캐셔를 전전하며 집안의 빛을 함께 갚으셨죠. 그 사이 잃은 건 너무 많은데 얻은 것이라곤 부모님의 당뇨, 고혈압, 관절염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을 견디다 보니 삶은 아주 더디게나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집 안에 걸어둔 가족사진들이 낡고 바래는 것도 모를 만큼 묵묵히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서 만년 코흘리개였던 저 역시 어느덧 성장하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취미가 사진인 남자와요.

생활이 다시 안정을 찾은 뒤에도 아버지는 카메라를 다시 구입하

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시간을 견디며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은 손살같이 흘러갔고 기술은 너무 빠르게 진보했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카메라에 대한 많은 상식과 지식이 변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디지털카메라의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법에 숙달하기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그 어떤 최첨단 기술의 카메라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남편이 장인어른의 선물이라며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미놀타’라는 회사의 옛날 필름 카메라. 어디에서 어떻게 구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준비한 남편은 한껏 의기양양해 보였습니다. 사실 카메라에 무지한 제가 보기에든 훌륭한 보관 상태의 중고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죠. 본가에는 이미 제가 선물한 디지털카메라가 있지만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하물며 아프기 시작하신 이후로는 삶에 대한 의욕이나 기쁨이 줄어들어서 과연 이 선물을 좋아하실지 염려도 됐습니다.

하지만 사위에게 카메라를 받으신 아버지는 놀랍게도 능숙하게 손등에 스트랩을 감으며 “이건 이렇게 잡아야 떨어뜨리지 않고 안전하다!”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수백수천 번 해왔던 것처럼 필름을 감고 사진을 찍고 필름까지 완벽하게 교체하셨습니다. 이때의 생생한 아버지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당신의 기억력이 빛바래졌어도 필름 카메라는 옛날 아버지 추억 속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날 사위에게 받은 카메라를 주제로 열변을 토하는 모습은 제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젊은 시절의 아버지 같았습니다.



그 끝에 아버지는 자못 씩씩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찍고 인화한 추억들은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지금같이 편리한 시대에선 너무 쉽게 사진을 찍고 너무 쉽게 지우고 그래서 더 빨리 잊어버린다.”

그제야 필름 카메라를 선물 드린 남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사진을 고루한 취미라고 여겼던 저는 단 한번도 아버지의 취미를 귀 기울여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또한 카메라를 내다 판 그날 이후로 그것을 언급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그때부터 쪽 기다리신 게 아닐까요? 당신의 취미를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즐거워해 줄 사람요. 아버지의 찬란했던 추억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헤아려줄 사람을 말입니다.

저는 그저 다 쓴 필름의 인화를 부탁한다며 전화 주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밝고 또 행복해서 이 추억을 기록하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하니까요.

남편은 요즘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장인어른을 위해 가족들의 사진을 최대한 많이 찍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사진 속에서는 제가 아버지의 기억보다 너무 많이 커버렸지만 오래오래 제가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의 손편지

할아버지의 사랑

원나경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희운이모, 일중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2살이된 꼬마당당이입니다.

여성시대 애청자가 되어있는 저희 어머니더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차이서든, 집에서든 여성시대와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집 화장실에는 여성시대 수건으로 꼭

차있답니다.

저는 오늘 저희 할아버지의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 사연이 방송을 한다면 저는 꼭 대신들기로 할아버지께

들려드릴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엄청 좋아하실것 같아요.

매일 아침 8시 50분 제가 학교에 가려고 버스타러나가면
매일 버스 정류장 근처에 저희 할아버지가 연아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한 그날부터 지금
5학년이 된 이날 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배웅해주
셨습니다. 비오는날엔 버스 타러가기 무섭음 완화 주시고,
눈이 오는 날엔 제가 축복가봐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언제나 따뜻하고 저는 더욱 행복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니 제가 타고 자리에 앉아서 할아버지께
손을 흔들어요이면 할아버지도 화하게 웃으시면서 "찬찬다!"
라고 하시면서 손을 흔들어주시는데 버스가 보이지 않을때
까지 흔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버스에서
뒤를 돌아보았을때 할아버지는 늘 그제에 대셨으니까요.
"할아버지, 이제저 갔으니까 안 나오셔도 되요."

저를 과사도 잘 하수있어요. 한아빠지 다리 아프시니까 집에
계시면 제가 가끔 불러갈게요." 근호 말씀드렸더니
"아니야. 할아버지는 괜찮아. 다른 아이들은 다 부모가 배병하는데
엄마아빠다 인하러 가시니 항상 너 혼자 가는거 할아버지
마음쓰예 그래 운동삼아 나오는거니까 신경쓰지 말고 학교 잘
갔다 오" 늘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병학기개이다 학교에 안가고 오후 2시에 하월에
가는데 인후려 할아버지께 나오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연히 버스 기다리다가 산책방지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또 또 어김없이 할아버지께서 2시에 같은
자리에서 저를 맞아주십니다. 할아버지는 온해 93세이셔서
이젠 걷는것도 슬라하하는것 같은데 전 너무너무 마음이
아쁩니다. 할아버지의 사랑과 정성을 면코 무려무려 자라고

있는데 제가 어른이 되던대까지 한아버지께서 못가다리신것
같은데 생각하면 슬퍼서 눈물이 납니다.

저는 열심히 자라서 모든일에 최선을 다하는 어른이 되어서
할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멋진 사람이되거라고
다짐합니다!

TO.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진짜 진짜 많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귀도 큰 건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시손 오래오래 잡아주세요 220

그리고 할아버지, 아프지 마시고 항상 사랑합니다!!♡♡



여성시대 사진방



[4738] 밀양에 정구지 밭입니다. 싱싱한 정구지 눈으로 맛보세요.



[1344] 1993년 7월부터 매달 여성시대를 애독했습니다. 집에 모아둔 책자가 307권이나 되네요.



[5592] 담양 청평 시골 도로 확장을 위해서 갓길 두드려 갠 콘크리트 치우고 있습니다.



[8545] 달래 작업하면서 여성시대 들고 있어요.



[3131] 할머니 댁 송아지는 매일 라디오를 틀어줘야 이렇게 맛나게 밥을 먹어요. 어찌나 맛나게 먹는지 저도 입맛이 돋답니다.



[0355] 방금 기업은행 일 보러 갔다가 여성시대 책자 챙겼네요. 근데 곰이 일중 씨랑 닮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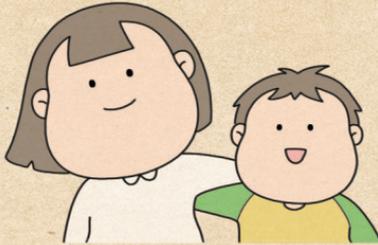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의
여성시대 가족 김현주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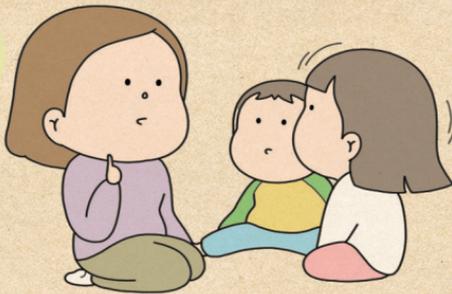


저에게는 올해 아홉 살 된 예쁜 딸과
장난꾸러기 일곱 살 아들이 있습니다.



최근 주변 지인들의 예상치 못한
본인 상, 배우자 상등 슬픈 일을 겪고 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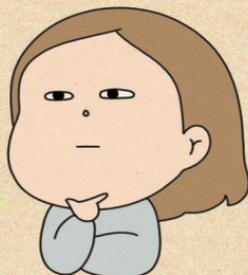
바로 아빠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혹시나 쓰러지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
아빠에게 전화를 하라고 가르쳤었습니다.

하루는

요 녀석들
잘 기억하고 있나...?



하는 호기심이 동해
쓰러지는 척하며 거실에 누웠더니
아이들이 다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딸은 제 코에 손을 대고
숨을 쉬는지 살피다

서우야 큰일 났어!
엄마가 숨을 안 쉬어!

빨리 아빠한테
전화해!



누나의 지령을 받은 아들은
전화를 들어 아빠에게 전화하는 듯하더니

심각하게 제 누나에게 묻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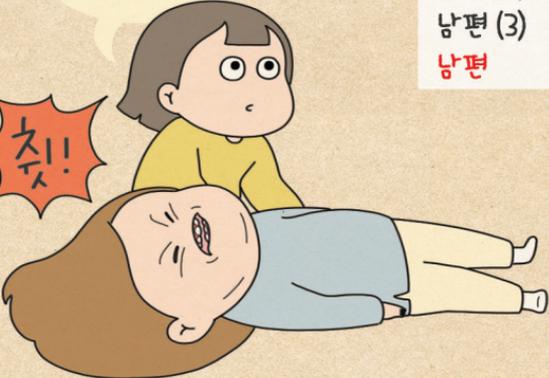
누나 여기
남편, 남편 2 남편 3 있어
이 중에 누구한테 전화해?



최근 통화
남편
02-123-4567
070-1234-5678
남편 (2)
남편 (3)
남편

무슨 소리야?

치잇!



이 말에 기절한 척 누워있던 저는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엉뚱한 장난꾸러기 아들의 일화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
결혼 두 번 했지?

내가??



엄마랑 아빠랑
한 번 결혼해서 누나를 낳았고
두 번 결혼해서 나를 낳았잖아.

??????



우리 아들 덕분에 남편도 세명이나 되고
결혼도 두 번 한 엄마가 되었답니다.



해충방제를 넘어 안심 케어의 가치를 만든다



IBK기업은행 송현동지점 거래고객

(주)케어원 김호영 회장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2005년 미국 최대 방제회사 터미닉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한 (주)케어원은 해충 방제와 클린케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생활환경위생관리 전문기업이다. 세계적인 기술과 한국 시장에 맞는 연구 역량, 17개 직영지사로 전국 커버를 모두 갖춘 기업으로 '생활환경위생관리 분야에 진정한 리더로 혁신적인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케어원은 글로벌 해충 방제 분야의 1등 기업 터미닉스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체 연구개발(R&D)센터를 중심으로 한 고도화된 기술력을 통해 한국 실정에 최적화된 방제 솔루션을 개발 및 적용하고 있다. 첨단 연구시설과 전문 연구 인력을 갖춘 R&D센터는 케어원의 핵심 경쟁력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독자적인 방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단순 해충 제거를 넘어 클린케어와 바이러스 케어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해 생활 환경 전체의 위생과 안전을 책임지는 안심 솔루션을 제공한다.

김호영 회장은 “해충 방제와 클린 케어 유기적으로 결합된 위생 솔루션 제공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강조했다. 또한 케어원은 계열사인 세계 최대 홈클리닝 회사 ‘메리메이드’의



가정집 거주 공간 청소 노하우를 적용하여 사무실과 사업장별 맞춤형 클린케어 서비스와 새집증후군 서비스 등 특화 서비스로 고객 니즈에 맞춰 토탈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충 방제부터 클린케어까지 효율적인 관리로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케어원은 최근 에어컨 케어 서비스 플랫폼을 새롭게 런칭했다. 기존 에어컨 관리는 전화 문의, 불확실한 방문 시간, 번거로운 예약 조율 등 많은 불편함이 따랐다. 마치 인터넷 쇼핑을 하듯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을까? 그 해답으

로 케어원은 온라인 예약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제 고객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선택하고, 간단한 절차로 전문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다. 마치 택시 앱처럼 가장 가까운 전문가가 고객이 예약한 시간에 방문하는 시스템이다. 필터 청소부터 곰팡이 제거, 냉방 효율 개선까지 꼭 필요한 서비스를 불필요한 불편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케어원의 남다른 점은 직원 복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 방식이다. '행복한 직원이 행복한 고객을 만든다. 직원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고객 서비스의 질로 직결된다'는 경영 철학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불필요한 야근 지양, 성과에 따른 해외 휴가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케어원의 모든 직원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다. 이들은 해충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심'이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가들이다. 이러한 자부심으로 매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있기에 케어원의 서비스는 차별화된 가치를 지닌다.

해충 방제·클린케어·에어컨 청소 서비스를 선도하며 혁신적인 위생 솔루션을 제공하여 국내 1위업체로 자리 잡는 것이 케어원의 목표다. 하지만 그 숫자 너머에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단순히 해충을 퇴치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김호영 회장은 케어원의 핵심 가치는 '안심 케어'라고 강조한다. 케어원의 모든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철학이다.



케어원의 이러한 철학은 IBK기업은행과의 협력에서도 빛을 발한다. 전 직원 급여 통장 및 법인 자금 관리 등 다양한 금융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 및 사회공헌활동에서도 협력관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송현동지점 서현수

지점장은 “회장님께서서는 전기·전자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으시며 많은 직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IBK기업은행과의 오랜 인연이 지속되어 회장님이 이끄는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라며 지속적인 지원과 응원을 전했다.



(췌케어원 김호영 회장(왼쪽)과 IBK기업은행 송현동지점 서현수 지점장

❗ (췌케어원 김호영 회장의 운영 노하우

1.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라.
2. 믿음과 신뢰를 쌓아라.
3.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췌케어원

대표 김호영

전화 02-553-5200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48

홈페이지 <https://www.carel.co.kr/>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로 예방까지 책임진다



IBK기업은행 분당서현역지점 거래고객

서울나우병원 성정남 원장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서울나우병원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병원으로
관절 및 척추 치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02년 서울대 출신 의료진이 분당에 서울나우의원을 개원하며
시작된 병원은 2003년 서울나우병원으로 승격되었으며
이후 꾸준한 연구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현재까지 8,800례 이상의 인공관절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국내외 의료계에서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나우병원의 의료 서비스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인의 무릎 관절 구조와 생활 습관을 반영한 '한국형 맞춤 인공관절 B.R.Q Knee'를 개발해 환자들에게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움직임을 제공한다. 이 인공관절은 최대 150°까지 무릎을 꿇을 수 있고, 특수 코팅 기술

을 적용해 금속 알레르기 반응을 최소화했으며, 기존 제품보다 2배 이상 긴 20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한다. 서울나우병원은 분야별 전문 의료진의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한국형 인공관절을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3세대 완전 자동 로봇을 활용한 인공관절 수술



을 도입해 더욱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며, 진료부터 수술, 재활까지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대학병원급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어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환경을 제공하며,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서울나우병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의료진에게도 전문성을 전수하며 글로벌 의료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성정남 원장은 “병원을 처음 개원할 때 서울대 출신 선후배들이 ‘섬김, 사랑, 선교’라는 가치를 실천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 환자를 위한 정직한 병원을 운영하고자 했던 우리의 초심이 지금의 서울나우병원을 만들었다”고 회상했다.

병원을 운영하며 큰 도전 중 하나는 2010년 병원 건물로 이전했을 때였다. 비영리적이고 정직한 진료 철학을 지켜온 서울나우병원은 상업적인 운영보다는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추구해 왔기에 초기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IBK기업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자금 위기를 극복했고 이를 계기로 더욱 탄탄한 병원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서울나우병원은 직원들의 성장과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의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대학원 학비 및 학원비 일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 직원이 '환자 경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성원장은 "직원들이 서울나우병원에서 배운 가치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곳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직원들에게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한

다"고 전했다.

서울나우병원은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재활까지 아우르는 토탈케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성정남 원장은 "병원이 치료에 집중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예방과 재활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병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BK기업은행 분당서현역지점 김정훈 지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IBK기업은행의 협약을 통해 출시



된 의료사업자 전용 상품을 통해 적시에 대출을 지원하는 등 의료와 금융이 결합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며 “서울나우병원이 오랜 시간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지켜온 만큼 IBK기업은행도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여 병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IBK기업은행 분당서현역지점 김정훈 지점장(왼쪽)과 서울나우병원 성정남 원장

! 서울나우병원 성정남 원장의 운영 노하우

1. 언제나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2. 환자를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라.
3. 최신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혁신을 주도하라.

서울나우병원

원 장 성정남
전 화 1588-2691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3(서현동, 나우빌딩)
홈페이지 <https://www.nowmed.co.kr>

코너 속 편지

사랑 사랑 사랑

- 81 하숙집 딸의 마음
- 86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 91 왜 그랬을까
- 94 질투의 힘

여자는 모른다

- 97 허풍도 유전인가요
- 102 인정이 고프다
- 105 남자의 아재 개그
- 107 키스 미



일러스트 | 조신애

사랑 사랑 사랑

하숙집 딸의 마음

애청자

‘하숙생 구함.’

대학 근처 요즘 보기 드문 문구가 쓰인 걸 보니 오래전 일이 생각났다. 나도 하숙집 주인이 꿈이었는데 하숙생 받으려면 방이 있어야 하는 데 오십 줄에 가서야 겨우 내 집을 마련해 꿈을 이루지 못했다.

엄마는 가게 장사가 잘되지 않자 막걸리도 팔고 국수도 삶아 팔았다. 식당이 없던 곳이라 학교 선생님, 한전 직원, 산림청 직원이 근무하러 오면 우리 집에서 숙식을 했다.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은 집이 읍내였고 우리 집에서 삼시 먹는 조건으로 학교 다니는 남동생과 교환 하숙했다. 교장 선생님은 관사에서 잠을 자지만 남동생은 교장 선생님 집에서 자니 엄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교장 선생님 드시는 거 특별히 신경 써라. 그래야 네 동생도 잘 얻

어떡을 테니.”

나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고 빨래할 거 있으면 넷가에 가서 깨끗하게 빨아 말려 주곤 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는 남동생이 빨랫감을 가져왔는데 팬티에 서캐가 있고 내복에 검은 이가 스멀스멀 기어다녔다.

“야, 이 머스마야 옷을 제때 빨아 입어야지. 이게 뭐야?”

“어 그게 사실.”

동생이 말을 못 하고 더듬거렸다

“사모님이 빨래 안 해줘?”

“어. 그래서 내가 빨려고 했더니 비누 값이랑 물 값 많이 나온다고 집에 가서 하래.”

“그게 정말이야?”

나는 너무 기가 막혔다.

“우리가 교장 선생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난 화가 나서 반찬 가짓수를 줄여 상을 차렸다.

“야야 교장 선생님 무말랭이 김치 좋아하시는데 왜 안 냈냐?”

“주기 싫어서.”

“그기 뭐 말이고?”

“엄마 내가 얼음 깨고 손 호호 불어가며 일주일에 두 번씩 빨래해 주는데 준이한테 비누도 쓰지 말라 하고 물값 많이 나온다고 빨래도 못 하게 했다잖아!”

“그건 사모님이 그랬지 교장 선생님은 아니잖아.”

“우리가 이러는 거 알면 집에 가서 말할 테고 그럼 사모님이 뭐가 깨달겠지.”

“먹는 거로 그러지 말아.”

“내 맘이야!” 심술을 냈다.

한전에 다니는 총각은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좋아 살짝 마음이 갔다. 남몰래 이것저것 잘 챙겨주었는데 어느 날 애인을 데리고 함께 밥을 먹으러 왔다. 빠죽 내민 입술이며 생김은 나보다 못생겼는데 몸매는 두리몽실한 나보다 슬직히 이뻐다. 혼자 좋아했으면서 괜스레 심술이 났다.

어느 날 장 씨가 점심때가 한참 지났는데 밥 먹으러 오지 않았다. 요즘은 휴대폰이 있어 급한 일 생기면 연락할 수 있지만 1970년대 초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행여 올까 술 안에 밥을 데웠는데 저녁 때가 돼서 밥을 먹으러 왔다.

“죄송해요. 아랫마을에 전기가 말뽕을 일으켜 점심때 못 왔어요.”

맘씨 좋은 우리 엄마는 “저런 배고팠겠네” 하시며 얼른 상을 차리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내가 기다린 만큼은 아니지만 천천히 반찬을 상에 올린 후 새로 한 밥은 그냥 두고 낮에 넣어두었던 찬밥을 상에 놓았다.

“야야~ 새로 한 따순 밥 놔두고 왜 식은 밥을 상에 올리냐?”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야?”

“뭘 말이고.”

“낮에 밥 다 먹으면 저녁에 한 밥 줄 거야. 누가 낮에 안 오래?”

“바빠서 못 왔다고 안 하나?”

“그건 장 씨 사정이지.”

“우째 그리 심술 꾀냐?”

“내가 뭐? 새 밥 주면 우리가 또 찬밥 먹으니 그렇지!”

갓 발령받아 왔다는 20대 총각 선생님. 직업이 맘에 들었다. 나랑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갔다. 이쯤에서 내 소개를 하자면 피부는 시골 아이답지 않게 뽀샤시했고 키는 160 정도 동그스름한 얼굴에 생글생글 잘 웃어 며느리 보고 싶다는 사람이 많았다. 선생님은 하얀 피부에 여자같이 생겨 은근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밥 먹으며 엄마는 병원에 장기 입원해 계시고 할머니가 집안 살림하며 동생 3명 보살펴주신다는 말을 듣고 마음을 접기로 했다. 좋아하는 마음은 꽤 있었지만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이 오빠를 보러 왔다. “언니, 우리 운동장 걸어요.” 하기에 같이 갔는데 뜻밖에 말을 했다. “혹시 우리 오빠가 언니 많이 좋아하는 거 아세요?” 오빠가 고백을 못 하는 것 같아 귀뜸한다는 말에 “나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거짓말해놓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신경을 더 썼다. 다 같이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혼자 따로 올 때면 계란프라이도 해주고 구수한 누룽지도 끓여서 주었다.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 우물에 가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자주 물었다.

“박 선생님이랑 결혼할 거지?”

“너 사모님 소리 듣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았지만 싫지도 않았다.

제일 짠했던 하숙생은 산관차 조수 진호였다. 진호는 나랑 동갑이었는데 여러 조수 중 키가 제일 작고 피부가 까무잡잡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말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것저것 챙겨주었다. 누룽지 몽쳐 두었다 주고 엄마가 잔칫집서 얻어온 떡도 몰래 두었다 먹

으라고 주었더니 진호도 고마웠는지 산에 갔다 올 때면 머루 다래 따와서 내 손에 건네주곤 했다. 어느 날 진달래를 한 아름 꺾어다 주며 “니는 좋겠다” 하기에 “내가 좋을 게 뭐 있어? 상급 학교도 못하고 부엌데기로 사는데?” 대꾸했다.

“넌 그래도 글은 다 알잖아?”

“그럼 넌 글을 다 몰라?”

“어 모르는 게 더 많아.”

“내가 가르쳐 줄까?”

“진짜? 내 소원이 글 배워서 편지 써 보는 건데.”

“그럼 열심히 배워서 나한테 편지 써봐.”

“고마워. 대신 내가 매일 마당도 쓸고 물도 가끔 쳐다 줄게.”

진호는 산판에서 늦게 오는 날도 써보라고 한 건 잘 썼고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도 쓸었다.

“야 누가 맨날 마당 쓸래?”

내가 화내자 엄마가 의아한 얼굴로 “마당 쓰는 애한테 짜증을 왜 부리냐?” 말했다.

“다른 애들도 있는데 진호 혼자 맨날 청소하니 그렇지.”

“부지런해서 어딜 가도 귀염받겠구먼.”

내가 화를 낸 건 혼자 애쓰는 게 불쌍해서였다. 어느 날 진호가 쪽지를 주기에 펼쳐보다 쿡 웃음이 나왔다. 첫 줄에 ‘읽어 줄래’가 아닌 ‘잇어 줄래’라고 쓰여 있었다. 유난히 쌍받침을 어려워하더니.

“왜 웃어?”

“어? 아니야 좋아서 그래.”

진호는 편지글처럼 얼마 후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조수는 차가 다른 지역 가면 무조건 따라가야 했다. 나는 진호를 잊었다.

사랑 사랑 사랑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애청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일입니다. 대학 때부터 10년 넘도록 절친으로 지낸 친구 무리인 5공주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친한 친구인 미연이가 결혼하게 되었지요. 예쁘게 원피스를 차려입고 결혼식에 참석했죠. 감동의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대망의 친구들 사진 촬영 시간. 얼른 뛰어나갔지만 순식간에 친구의 옆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마지못해 친구 뒷줄에 서려고 계단식 단상 한 칸 위로 올라갔는데 바로 그때 휘청하고 오랜만에 신은 힐 때문인지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 본능적으로 제 옆에 누군가를 붙잡았는데 순간 그분의 표정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건 마치 똥 씹는 표정! 경멸의 눈빛으로 절 쳐다보는 그 남자의 표정이 참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어쨌든 부랴부랴 자세를 바로잡고 사진을 찍고 결혼식이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한 달 뒤쯤 미연이를 만났습니다.

“신혼여행 어땠어. 재밌었어? 첫날밤은? 아~ 얘기 좀 해봐.”

“진짜 재밌었지!”

한참 친구의 신혼여행 설을 듣다가 문득 그날의 그 기분 나쁜 남자의 표정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말했죠.

“야! 맞다. 나 그날 너 결혼식에서 진짜 기분 나쁜 일 있었어.”

“왜? 무슨 일인데?”

“아니 그때 친구들 사진 촬영 시간에 내가 단상 한 칸 위로 올라가다가 잠깐 휘청했거든. 그래서 옆에 누군가 붙잡았는데 그 남자가 신랑 쪽 사람이었던 거 같은데 표정이 진짜 똥 씹은 표정인 거야! 무슨 별레 보듯이 날 보더라고. 아 열받아! 아니 여자가 좀 휘청하면 잡아주는 못할망정 무슨 사람을 그런 표정으로 보냐?”

“하하하~”

친구는 박장대소를 하더니 “야! 내가 누군지 진짜 궁금하다. 집에 가서 결혼사진 보고 누군지 찾아봐야겠다. 너 옆에 선 남자 누군지!”

“야~ 됐어 됐어. 그거 알아서 뭐 해.”

그렇게 며칠 후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그때 그 똥씹남 있잖아! 그거 누군지 알았어!”

“누군데?”

“우리 남편 어릴 때부터 절친 5인방 있잖아. 독수리 5형제라고. 그중 한 명이더라. 남편이 그러는데 그 오빠가 원래 결벽증 같은 게 있어서 누가 자기 몸에 닿는 걸 극도로 싫어한대. 음식도 자기 건 꼭 따로 덜어 먹고.”

“아 그래? 됐어. 뭐 다시 불일도 없는데!”

“너 소개팅 안 할래?”

“갑자기?”

“우리 오빠 친구 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 한번 만나 봐.”

“싫어. 나 요새 바빠서 남자 만날 시간 없어.”

“별써 한다고 했어. 무조건 나가! 무조건!”

“설마 그 결벽증남 아니지?”

“야! 내가 그 사람을 왜 소개해 줘. 아냐 아냐 다른 친구야!”

“그래?”

친구의 갑작스러운 소개팅 제안에 전 얼떨결에 그 장소에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남자를 또 만나고 말았습니다.

“저기 혹시 OO 씨?”

“아, 네. 아니, 저 그게. 네 맞아요.”

“여기 앉으세요!”

“네.”

그렇게 우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180 정도 되어 보이는 훗칠한 키에 얼굴도 쌍꺼플 없는 딱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래도 그날의 그 표정이 잊히지 않아서 마음의 벽을 치고 있는데 그분이 “미연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날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모르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걸 싫어해서 저도 모르게 나온 표정이니까 너무 기분 나빠 하지 마세요.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정중히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보며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 친구에게 전화해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주었고 친구는 또 하하하 웃으며 “그 오빠가 너한테 사과 전해 달라서 내가 직접 만나서 사과하라 그랬지!”라는 겁니다.

어쨌든 사과도 받았고 커피도 얻어 마셨겠다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어떠세요? 저번에 커피만 마시고 헤어져서 아쉬웠어요. 오늘 제가 맛있는 저녁 사드릴게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 이후 묘하게 그에게 호감이 갔지만 다른 사람과 닿는 걸 그 정도로 싫어하면 여친이랑 스킨십도 못 하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에게서 세 번째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저는 오늘 나가서 확실히 말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간단하게 술을 한잔 하자는데 그의 말에 우리는 일식 주점에 사케를 마시러 갔고 한 병 두 병 알뜰알뜰하게 취기가 올라 이제 집에 가려고 나서는데 그가 “저, 저는 OO 씨가 맘에 드는데 OO 씨는 어떠세요? 저랑 한번 만나보지 않으실래요?” 말합니다.

“아 저... 저기...”

그때 술기운 때문인지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스킨십을 좋아해요!”

“네?”

“저기... 다른 사람이랑 닿는 걸 싫어하신다면데요. 근데 저는 좋아한다고요.”

“하하하 끄옥끄옥~”

그는 박장대소를 하다가 숨까지 헐떡이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왜 웃으세요? 누가 닿는 거 싫어하신대서 걸을 때도 그쪽 팔이라도 스칠까 얼마나 조심하면서 걸었는데요. 이렇게 혹시 몸에 닿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사귄 수는 없어요.”

한참 웃다가 눈물까지 맺힌 얼굴로 절 뺨히 쳐다보며 갑자기 제 쪽



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왜 왜 이렇게 가까이 어땀!”

그는 저에게 성큼 다가와 저를 꼭 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의 가슴팍에 폭 안겨 어머 어머를 외쳤지만 결코 뿌리치진 않았고 그 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란 기간 동안 제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준 그와 결혼했습니다. 그의 결벽증은 아직도 여전하지만 저에게만은 예외입니다. 결벽증이라 좋은 점은 저 말고 다른 사람과는 절대 스킨십할 일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왜 그랬을까

애청자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끝나자마자 영애가 전학을 왔다. 그리고는 내 짝이 되었다. 영애도 나도 말수가 적은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자리에 앉아 도란도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우린 금세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

“효정아, 오늘 학교 끝나고 우리 집 갈래?”

영애와 함께 버스를 타고 상계동 영애의 집으로 놀러 갔다. 높은 아파트 단지와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낮설고도 너무 좋아 보이는 놀이터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영애야, 너희 동네 진짜 좋다.”

당시 우리 집은 재개발이 되지 않은 그야말로 판자촌 같은 동네의 좁디좁은 집이었기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 단지의 웅장함이 그저 놀랍고도 부러울 뿐이었다. 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놀이터 그네와

벤치에 앉아서 영애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며칠 후.

“효정아, 나 남자친구 생겼어. 재학이라는 애야.”

“어머 정말? 남자친구? 어머머 웬일이야?”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영애의 말에 그저 신기해서 영애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그날 있잖아. 너 우리 집에 놀러 왔던 날. 그날 우리 둘이 노는 거 보고 반했대. 그래서 사귀기로 했어. 그리고 이거~”

영애가 내민 편지 한 통.

“이게 뭐야?”

영애가 내민 편지 겉봉투에는 ‘훈이가’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재학이 친구 훈이라는 앤데 그날 재학이랑 훈이랑 같이 있었대. 근데 재학이는 나한테 훈이는 너한테 반했대.”

훈이가 누구인지 얼굴도 그 무엇도 모르지만 날 보고 반했다는 영애의 말과 전달된 편지에 왠지 모르게 설레었다.

<효정아 안녕? 난 훈이라고 해. 며칠 전에 놀이터에 있는 너의 모습을 보고 좋아졌어. 난 일중중학교 다녀. 너랑 친해지고 싶어.>

이후로도 몇 번의 편지를 전달받았고 나 또한 답장을 보내며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다. 훈이의 편지는 마냥 두근두근 설렘 그 자체였다. 그리고는 왠지 모르게 훈이가 좋아졌고 어떤 친구인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선뜻 영애에게 같이 만나러 가자는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영애에게 “영애야 너희 집 놀러 가도 돼? 갈 때 훈이랑 재학이도 같이 만나자”라고 했죠. “어 그래~ 오늘 집에 가서 언제쯤 만날지 물어보고 알려 줄게”라는 영애의 대답. 그리고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그런데 느닷없는 사고 소식.

“훈이가 교통사고가 났대. 그래서 병원에 입원 중이래. 이번 주말에는 못 만날 거 같으니까 답에 만나자.”

“훈이 많이 다쳤대? 그럼 문병 하러 갈까?”

“어. 그럼 물어볼게.”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문병은 갈 수 없었고, 대신 훈이가 좋아하는 바나나와 빵을 사서 보내주면 어떻겠냐는 영애의 제안으로 을지로에 있는 백화점으로 향했다.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당시 백화점에서 하나에 1,700원이나 하는 바나나 한 개와 2,500원짜리 카스텔라 빵을 사서 영애에게 편지와 함께 건네주었다.

그렇게 열레벌레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난 같은 반 다른 친구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줬고 그 친구 역시 이상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진짜 있는 거 맞아? 아무래도 이상한데? 혹시 가공인물 아냐?”

찬찬히 생각해 보니 처음부터 이상하기도 했다. 편지로만 소통하며 만날 약속이 자꾸 어긋나는 것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부잣집 배경이라는 영애의 설명도, 의구심은 들지만 친구를 멋대로 의심할 수 없기에 난 영애를 믿기로 했다. 그렇게 기말고사가 다가왔다.

“영애야~ 국어 노트 좀 빌려줘. 양호실 다녀오느라 필기를 못 했어.”

그리고 필기를 위해 열어본 영애의 노트. 순간 무언가에 언어맞은 듯 멍해졌다. 영애의 국어 노트 안에는 훈이의 편지에서 본 똑같은 글씨체가 있었다. 알고 보니 재학이와 훈이는 영애가 만들어낸 가공인물이었다. 난 영애가 만들어낸 가공인물에 두근두근 설레어 편지로 내 마음을 전달해 가며 나의 수줍은 어린 날의 사랑을 농락당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던 영애. 35년이 지난 지금도 왜 그랬을까? 그저 궁금할 뿐이다.

사랑 사랑 사랑

질투의 힘

애청자

어렸을 때부터 TV 드라마를 보면서 나는 늘 결심했다.

‘나는 질투 같은 거 안 하는 쿨한 여자가 될 거야.’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들은 항상 남자 주인공이 다른 여자와 얽히기만 해도 온갖 히스테리를 부리거나 질투심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렸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난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질투 안 하는 여자가 더 멋지다. 쿨한 여자가 사랑받는다.’

하지만 그 다짐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건 스무 살이 되자마자 알게 되었다. 처음으로 사귀는 남자친구는 나보다 두 살 많은 아주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가 무심코 휴대폰을 꺼내 인스타그램을 확인했다. 손가락을 몇 번 움직이더니 한 여자애가 올린 사진에 ‘좋아요’를 꼭 누르는 거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무언가가 ‘쿵’ 하고 건드려졌다.



‘어라... 방금 그거, 나 말고 다른 여자 사진 아니야?’

마음이 불편했지만 쿨한 여자가 되기로 결심한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여자애의 별그림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애가 올린 모든 게시물마다 내 남자친구의 ‘좋아요’가 찍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장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다.

“너 혹시 그 친구 좋아해?”

“내 사진에는 좋아요도 다 안 누르면서 왜 그 애한테만 그러는 건데?”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 질투 너무 심하다.”

“나 이런 거 감당 못 하겠어. 우리 그냥 그만 만나자.”

쿨한 여자가 되기 위해 참으려 했지만 결국 내 질투심은 사랑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말았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 나는 대학 동기와 비밀연애를 시작했다. 둘만의 달달한 연애였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커플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다. 어느 날부터 동기들이 자꾸 내 남자친구를 다른 여자애와 엮기 시작했다.

“너랑 유진이 진짜 잘 어울린다.”

“둘이 사귀면 예쁠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렸다. 하지만 지난 연애를 떠올리며 나는 결심했다.

‘질투하면 안 돼. 쿨한 여자는 사랑받는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장단을 맞췄다.

“맞아. 진짜 잘 어울리네! 완전 환상의 케미~”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내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길이 될 줄은 몰랐다. 몇 달 후 내 남자친구는 정말로 그 여자애와 눈이 맞았고 결국 나를 떠나 환승 연애를 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질투 표현도 필요하다는걸. 질투가 너무 과하면 사랑을 망치지만 너무 없는 것도 연인의 마음을 놓치는 길이 될 수 있다는걸. 그러니까 나는 이제 ‘쿨한 여자’가 되기보다 ‘사랑을 지킬 줄 아는 여자’가 되기로 했다.

남자는 모른다

허풍도 유전인가요

애청자

전 올해로 결혼한 지 12년 차 중년의 여인입니다. 제 시아버님은 나이가 드셔서 그렇지 정말 동안의 미남이십니다. 어디 가서 50대 초반이라는 소리까지 들으시죠. 참고로 71세시거든요. 옛날 영화 '지존무상'에 나온 유덕화 씨를 기억하시나요? 2:8의 곱게 빗은 머리에 기름기 반지르르한 80년대 유행한 머리 말이죠. 게다가 아버님의 얼굴은 말로 다 표현 못 합니다. 칠순이 넘으셨는데도 제가 보기엔 우윳빛 피부에 더 이상 솟을 곳도 없는 콧대! 말 그대로 지금에 얼짱이시죠. 정말 90년대 멜로 영화에서 금방 미끄러져 나온 장동건 씨 같은 분이 저희 시아버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주 조금에 흠이 있습니다. 바로 약간의 허풍이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TV에서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실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본 영화인데 또 봐도 재미있어서 시

부모님들과 함께 보고 있었죠. 그때 TV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함께 보시던 시아버님이 추억에 젖은 눈빛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 저 헬리콥터 오래간만에 본다!”

“예? 저 헬리콥터 보신 적 있으세요?”

“암! 옛날 군 생활할 때 항상 함께했는걸. 내가 군 생활 얘기한 적 없나. 난 특수부대 출신이었던다. 내가 맡은 보직은 적장을 사살하는 것으로 난 낙하 훈련 받을 때부터 헬리콥터에서 박격포를 들고 낙하해야 했던다.”

순간 전 놀랐죠.

“아버님! 대단하시네요. 저기 보니까 두 손 잡고 내리기도 위험해 보이는 데 그때 힘이 좋으셨나 봐요.”

“그뿐인가! 나와 전우 한 명에서 무려 300인분의 밥을 지어야만 했지.”

“둘이서요?”

“그럼.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었지. 총알이 빗발치는데 이것저것 따질 수 없지 않냐. 그 순서는 이랬다. 첫 번째로 쌀을 덩프트럭 10대에 실어 온다. 두 번째로 쌀을 63벨딩 수족관 크기의 유리관에 넣는 거지. 그다음 나와 전우는 산소통을 메고 쌀 씻으러 들어갔다. 그다음 잠수를 해서 쌀을 씻었지. 어느 정도 밥이 되면 포크레인으로 밥을 퍼서 옮겼고 그다음에서야 밥을 먹을 수 있었단다.”

전 정말 신기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일도 있구나! 정말 극한에 상황이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자 옆에서 배를 잡고 웃으시는 시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애가 믿네. 애가 믿어. 아가! 넌 그걸 믿내! 믿어? 다 거지부렁이지. 너희 시아버지의 어머니 즉 내 시어머니께서 말씀

하시길 저 사람은 군대 가기 싫어서 손가락 자른다고 난리 치다가 끝내 육군으로 갔다더구나. 그것도 가기 싫어서 죽여 달라고 바다에 들어가는 걸 겨우 끌고 왔다는 거 아니냐?”

순진한 전 다 믿었는데 시어머니 말씀을 들으니 순간 황당하면서도 순진했던 저 자신이 웃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선 아버님의 허풍에 전적을 말씀해 주셨죠. 저희 시어머니는 전라남도 함평에서 8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동생들을 돌봐줘야 하는 책임이 있었기에 남편만은 형제가 없는 사람을 원했죠. 그러다 중매로 저희 시아버님을 만나신 거죠. 만나시자마자 물어보신 게 “저 죄송한데 형제분이 어떻게 되세요?”였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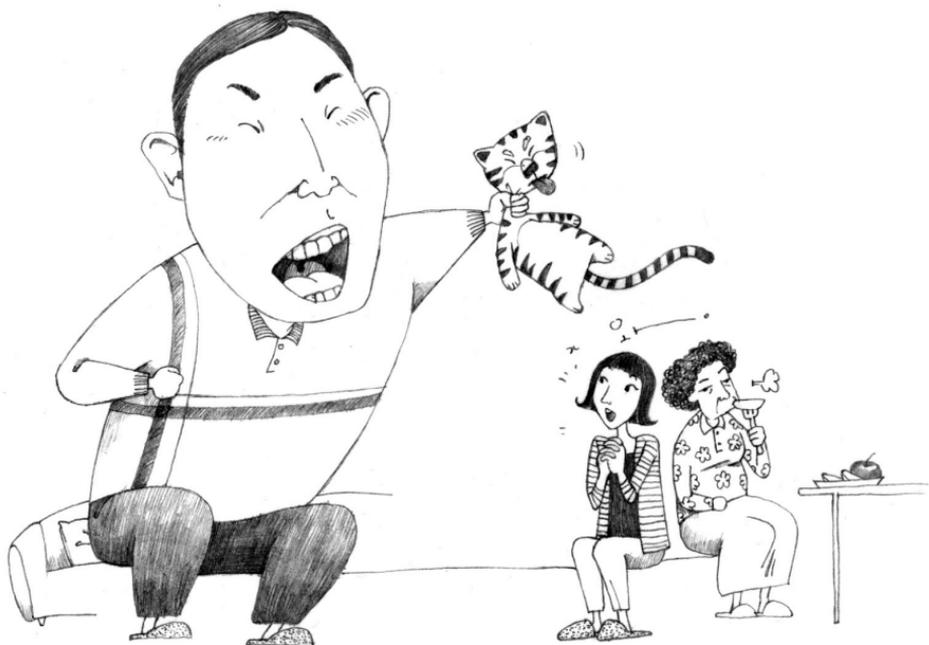
“저요? 외아들이예요.”

사실 아버님 형제분은 모두 9남매였습니다. 아버님이 결혼 전에 어머니께 형제 많다고 하면 시집 안 올까 봐 하신 허풍이죠. 그러면서 두 분은 결혼을 준비하셨는데 가끔 아버님 집에 갈 때마다 못 보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분들은 누구예요?”

그러자 아버님은 당당하게 “아! 사촌 애들하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यो. 애들이 못 살아서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곧 갈 거예요”라고 하셨습니다. 안심하고 시집오신 어머니는 왜 사촌들이 계속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먹고 자는지 궁금했지만 갖 시집오신 분이 조신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자코 있으셨던 거죠. 그러다 나중에 “사실 내 동생이야” 실토했습니다. 그것도 세 번에 나눠서요. 저처럼 순진하셨던 어머니는 저처럼 군대 얘기도 다 믿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믿은 사람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렇더라고요. 초등학교인 제 남편을 무릎에 앉혀놓고 항상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아빠가 너만 할 땐 집에서 도롱뇽을 키웠단다!”

“도롱뇽? 아빠가 매일 밥 줬겠네?”

“밥만 줬냐. 아빤 도롱뇽 타고 학교까지 다녔지. 그러다 배고프면 날아가는 핑을 손으로 잡아서 먹기도 하고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아 동네에 평화도 지켰지.”

그걸 믿은 남편은 학교 시험에 먹이사슬의 최종 소비자를 아빠라

고 써서 혼났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하여튼 네 시아버지는 술 먹고 돌부리에 처박혀 다치면 전쟁 나간 흥터라고 허풍을 떠단다.”

항상 엄하고 무서운 줄만 알았던 아버님이 이렇게 재미있는 분이 라고 생각하니까 더 가깝게 느껴졌죠.

그러다 그다음 해 올림픽 때였습니다.

한참 TV를 보는데 우리나라가 축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 대 0 으로 진 상태에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분위기였죠. 화가 난 우리 남편 이러는 겁니다.

“아이, 저게 뭐냐! 나라면 왼쪽에서 치고 들어가서 왼발로 슈트를 찼을 텐데.”

“당신 오른발잡이 아니야?”

“아, 당신 몰랐구나. 나 왕년에 스트라이커였잖아.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뭐 줄 알아?”

“뭘데?”

“스피드광. 내 다리를 본 순간 게임은 끝났다고 할 정도지. 그래서 지금도 조기축구회에서도 나 빠지면 재미없다고 주말이면 꼭 나오라고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주말마다 열심히 조기축구회 나가는 남편이기에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아이들에게 멋진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남편 몰래 응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멍해지네요. 딱히 포지션도 없는 우리 신랑. 연신 자기에게 공 달라고 손을 뻗어 “나 이쪽 여기, 여기 비었어” 하며 외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찌나 안쓰럽던지. 부전자전이라더니 우리 남편 정말 시아버님하고 똑같은 거 있죠.

남자는 모른다

인정이 고프다

애청자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제 남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남자는 자신이 믿음직스러운 남자이길 원합니다. 남자의 행복은 여
 자가 지닌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로 인식될 때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남자는 이걸 언제 어디서 확인할
 까요. 우리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에 답은 결국 남자의 인정 욕구. 남자는 여자의 인정을 갈구
 하고 인정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한다. 뭐 그런 거더라고요.

제 남편이 딱 그래요. 어떤 행동을 하든 꼭 저에게서 “잘했어~”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한번은 저녁 6시에 남편에게서 독이 왔어요.

<나 이제 퇴근해.>

<응~>

그리고 저는 저녁 준비해서 차리고 빨래 돌리고 남편 오기만 기다렸는데 집에 온 남편이 입이 쪽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왜 ‘수고했어~’ 그 한마디를 안 해?”

저녁 6시 남편이 퇴근 시간 땡하고 바로 툭을 했던 건 ‘오늘 수고했어’ 저한테 이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였대요.

또 어떤 날엔 남편이랑 드라이브를 나갔는데 복잡한 도로에서 요리조리 쪽쪽 레이싱 선수처럼 달리더라고요. 막히는 도로를 빠르게 탈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까 저는 솔직히 떨미가 났지만 애써 참고 있었습니다. 먼 산을 보면서 침을 꿀꺽꿀꺽 삼키는 중이었죠. 근데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나 잘했어? 나 방금 운전하는 거 봤어? 나만큼 운전 잘하는 사람도 있을까?”

남편이 무사고 베스트 드라이버인 건 인정하는데 굳이 애들처럼 그렇게 칭찬이 받고 싶을까. 나 속 뒤집히는 건 안 보이나.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저랑 같이 운동을 나갔는데 “남자는 힘이지!” 이러면서 무거운 역기를 스무 번 서른 번 팔을 부들부들 떨면서 들었다 놔다 하기에 “아이고, 고만해.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에이~ 뭘 이 정도 갖고, 봤지? 나 봤지? 나 아직 썩썩하다고. 이 나이에 이 정도 드는 사람 없다. 당신이 봐도 그런 거 같지? 응? 그치?” 그럼 또 제가 어찌됐어요. “잘한다 잘한다~ 역시 내 남편~” 이러면서 엉덩이 두들겨 줘야죠. 그런데 그날은 남편이 영 오버한다 싶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렇게 장단을 맞췄다가는 뭔가 사달이 날 거 같아서 “여보~ 그만해. 출다. 이제 가자.” 싸늘하게 말하는 걸로 남편의 흥을 끊고 집으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남편이 앓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으~ 으~ 여보, 나 움직일 수가 없어.”

어깨며 팔이며 온몸에 근육통이 와서 파스 뿌리고 붙이고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약도 먹었습니다. 어휴~ 제가 잘한다 잘한다를 적당히 하다 말아서 그 정도였지 남편 장단에 맞춰서 계속했으면 몸이 남아나질 않았겠더라고요.

지난 주말에도 친정에 가서 남편과 아버지 농사일을 잠깐 도와드렸는데 아끼 같은 우리 남편 또 또 시작이더군요.

“정말 세상에 이런 사위 또 없다. 당신도 알지? 어느 사위가 주말에 일부러 시간 내서 장인어른 농사일 도와드리냐, 안 그래? 그렇지? 장인어른~”

안 그래도 남편한테 참 고맙다고 생각 중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더 칭찬 안 해주고픈 마음, 뭘지 아시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가 알아서 잘했다 해줄 건데 뭘 그렇게 먼저 나서서 인정받고 싶다고 안달을 내는지 남편은 초등학교 딸내미 수학 문제 하나 풀어주고도 그래요.

“아빠 잘하지? 짱이지? 아빠가 왕년에 수학 진짜 잘했어. 아빠 멋있지?”

이러면서 애 앞에서도 어깨를 으쓱으쓱. 그럴 때 남편은 옆에서 저희가 “와~ 당신 진짜 최고.” “우리 아빠 짱~” 이러면서 물개박수라도 쳐주길 원하는 거겠죠. 저도 머리로는 다 아는데 가장으로서 열심히 사는 남편이 안쓰럽고 고맙고 많이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고 싶는데 매번 자기가 먼저 나서서 “당신은 진짜 좋겠다. 나 같은 남자 만나서! 나 같은 남편이 진짜 또 어디 있느냐” 입방정을 떠나니까 전혀 해주고 싶지가 않은 저의 마음을 남편은 알까요. 남자들은 대체 왜 그렇게 인정이 고픈 걸까요?

남자는 모른다

남자의 아재 개그

애청자

부부 동반 모임에 가서 서로 배우자에게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아내들이 우리 남편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재미있는 남자랑 살아 봤으면 좋겠다 또는 다음 생애는 재미있는 남자랑 살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여자들은 유머 감각 있는 재미있는 남자를 좋아하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머 감각도 타고나는 재능이기에 그런 감각이 저에게는 그다지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제가 선택한 유머 감각은 아재 개그입니다. 그 예를 들면 평소 하지 않는 엉뚱한 소리나 행동을 하면 아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라고 하면 그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면서 웃음을 주고 싶은 욕심에 “그래 그럼 나 치과 갔다 올게”라고 받아칩니다. 그 말과 동시에 아내는 물론 옆에 있던 딸까지 눈을 흘기면서 아우 썰렁해, 그만해, 재미 하나도 없거든 하면서 한마디씩을 하니 아재 개그



후 돌아오는 우리 집 두 여자의 반응에 오히려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재밌는데, 재미있으라고 했는데, 은근히 웃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가우뚱하며 왜 나만 개그를 하면 쌀쌀맞게 우리 집 여자들이 반응하는지 하는 생각에 섭섭해지기도 합니다.

티브이나 너뷰브에 나오는 남자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아재 개그보다 더 유치한 장난을 치는데도 그때는 재미있다면 친구들한테 공유까지 해가면서 웃으면서 나에게 왜 저런 반응을 하는 거지, 내 아재 개그가 왜 아내와 딸에게는 비호감을 부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보, 심심한데 재미있는 이야기 없어?”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그맨이야. 웃긴 이야기가 툭툭 나오게. 그럼 아재 개그는 어때?” 말을 하면 한숨을 푹 쉽니다.

아재 개그는 싫다고 하고 왜 여자들은 아재 개그가 싫은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남자로 살기 참으로 힘들습니다.

남자는 모른다

키스미

애청자

연애 시절 함께 거리를 걸을 때면 이 남자 제 발걸음에 맞춰 함께 걸어주었고 커다란 손으로 제 작은 손을 슬그머니 잡고는 손바닥에 땀이 나도 절대로 풀어주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서로 마주 보고 앉아 밥을 먹는데 이 남자는 제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는 제 손을 잡고는 밥을 먹는 바람에 한 손으로 식사를 하느라 힘들었어요.

데이트가 끝나고 우리 집까지 데려다주던 순간에 이 남자 저에게 “잘자~” 인사를 하고는 저만치 걸어갔는데요.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보고 있으려고 한 거였는데요. 바로 그때 그 사람이 제가 집에 잘 들어갔나 하고 확인하는 듯이 뒤를 돌아 저를 바라보다가 제가 그대로 서서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다시 제 쪽으로 막 뛰어와서는 은은하게 빛나고 있는 달빛 아래에서 제 얼굴을 양손으로 꼭 잡고는 “사랑해~” 하고는 입맞춤을 해줬어요. 이날이 바로 우리 부부의 첫 키스였어요.

그날 이후 아침마다 출근길에 절 데리러 오곤 하던 이 남자. 제가 차 조수석에 탈라치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뭐야! 차에 공짜로 타는 게 어딴어! 내 볼에 뽀뽀를 해줘야지~ 음... 자, 볼에 뽀뽀!”

귀엽고 사랑스럽게 말을 해줘서 제가 볼에 뽀뽀를 해주면요.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퇴근길에 만난 이 남자 제가 또 조수석에 타면요 “오래 기다렸어. 자, 볼에 뽀뽀!”라고 해서 제가 몸을 숙여서 볼에 뽀뽀를 하려고 할 때 이 남자 얼굴을 돌려서 입술에 뽀뽀하게 만들었다니까요.

“볼보다는 역시 입술 뽀뽀가 난 더 좋다! 사랑해~”

이렇게 뽀뽀하는 걸 좋아하던 이 남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니 변해버렸어요. 변해도 너무 변해버렸어요.

동료들과 회식이 있던 날 거나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온 남편이 그 날따라 무슨 바람이 붙었는지 침대에서 자고 있던 제 쪽으로 슬금 슬금 다가왔습니다.

‘아잉 뭐야? 뽀뽀하려나 보다. 아잉 부끄럽게!’

전 이미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잠이 깼지만 자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입술을 살짝 앞으로 마중 나온 상태로요. 그런데 이 남자 제가 잠을 깊이 자고 있는 걸 확인하듯이 제 얼굴 앞에서 손바닥을 왔다 갔다 하는가 싶더니만 침대 옆 협탁에 놓여있던 제 지갑을 집어 들더군요. 이 남자 저에게 뽀뽀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제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이 목적이었던 거였어요.

그러더니만 아이들이 자는 방으로 향하더군요. 그리곤 이내 들려오는 자는 아이들한테 해주는 뽀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빠라~ 뽀뽀 쪽!”

며칠 뒤 바쁜 아침 시간 부엌에서 저는 남편과 아이들 아침 준비로 바빴고 남편은 서둘러 아침을 대충 먹더니만 출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더니만 역시나 식탁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 아이들에게 일일이 볼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어린이집 잘 갔다 오고 사랑한다! 뽀뽀 쪽! 아빠한테도 뽀뽀해 줘야지~ 뽀뽀 쫘오옥!”

그래서 저도 남편의 키스를 받고 싶은 마음에 식탁 옆에 암전히 발 뒤꿈치까지 살짝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런 걸 보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은 거기 서서 뭐 하는 거야? 하마터면 나도 모르게 뽀뽀할 뻔했잖아.”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한마디 했더랬어요.

“나도 모닝 뽀뽀!”

그랬더니 남편이 넥타이를 매만지다가 달걀만큼 커다래진 눈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야? 아침에 뭘 잘못 먹었어? 가족끼리 무슨 뽀뽀를 하고 그런다는 거야? 당신 아침부터 나 웃겼다. 하하하. 완전히 웃겼어. 하하하!”

또 한 번은요 남편이 곤하게 자고 있던 한밤중이었습니다. 제가 옆으로 누워 잠자고 있는 남편을 조심스레 바로 눕히고 축축한 제 입술을 쪽 내밀어 뽀뽀하려고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던 바로 그때! 남편이 갑자기 두 눈을 번쩍하고 뜨는 겁니다.

“뭐야? 귀신인 줄 알았잖아. 지금 천녀유혼 영화 찍어? 뭐 하는 거야? 한밤중에 나 심장마비로 죽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야! 심

장아!”

이러면서 더 이상 무서워서 같이 못 자겠다고 거실 소파에서 쿵쿵 코를 골면서 자는 거 있죠.

아니, 아니! 연애할 땐 내가 그렇게 싫다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부끄럽다고 뽀뽀하지 말라고 할 땐 내 손을 내 얼굴을 움직이지 못하게 꼭 잡고 사정없이 키스를 막막 퍼부었으면서 것도 입술이 부르트도록 시간 날 때마다 뽀뽀해 달라고 두툼한 입술을 쭈욱 내밀고 기다리던 사람이 누군데. 밥 먹다가도 내 입술에 뽀뽀를 하던 사람이 누군데. 뽀뽀 안 해주면 토라져서 투정부리던 사람이 누군데. 키스 못해서 귀신 붙은 사람처럼 키스를 퍼붓던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제 남편만 그러는 걸까요. 가족끼리는 뽀뽀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 가족인 아이들한테는 왜 뽀뽀를 백번도 넘게 해주나요.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나한테만 뽀뽀하는 걸 거부하냐고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제 남편의 그 속마음을 알고 싶어요. 나도 뽀뽀 받고 싶다고, 나도 키스해 달란 말이야!



라디오 사랑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여성시대가 기업은행을 통해 매달 10일에 배포되면 그와 동시에 다음 달 원고 마감일이 다가온다. 그러니 원고 쓰기는 근 한 달을 앞서야 한다.

봄은 만만치 않았다. ‘봄이 왔나 보다. 한결 따뜻해졌네.’ 하면 영락 없이 심술부리며 꽃샘추위가 뒤따라왔다. 참, 수월한 게 없네. 3월 한 달은 여성시대 특집인 ‘여보세요’와 ‘신춘편지쇼’로 바빠 지나갔다.

날 풀리며 동네 개들과 산책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우리 18살 노견 미미는 피하수액을 주 3회씩 맞고 열심히 밥도 잘 먹는 데 7kg에서 5kg대로 빠져서 영 마음이 안 좋았다. 그런대로 물도 잘 마시고 식탐은 여전해서 이 상태로 가나 보다 했지만 4.6kg까지 또 체중이 줄었다. 수의사 선생님 말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란다. ‘헌 섬에 곡식’이라고 식사 잘 드시는 어르신 분들은 젊음이 못잖은 양을 드시는데 살이 안 찌시는 것과 비슷한가? 사람이나 동물이나 나이 들을 피할 순 없지만 늙는다는 건 슬프고 아프고 안스럽다.

여성시대 50주년을 맞는 2025년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획도 많다. 나는 그 50년의 반을 넘는 26년 차가 되었으니 가슴으로 쓰는 편지 덕에 사람 됨됨이에 보탬이 되었고, 세상 보는 눈도 여러 각도로 두루 넓어졌고,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할 때는 집중해서 귀 기울일 줄도 알게 된 듯하다.

임국희의 <여성살롱>은 이효춘, 손숙, 양희은으로 여성 진행자가 이어졌고, 이종환, 봉두완, 변웅전, 정한용, 김승현, 전유성, 송승환, 강석우, 서경석, 김일중까지 남성 진행자들을 모셨다. 편지의 답례로 소시지, 양말, 설탕을 보내던 70년대부터 세월 좋은 때에는 냉장고, TV까지 드렸다. 살림이 줄어들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뉴욕, 브라질 상파울루, 호주 시드니, 캐나다 토론토, 미국 LA,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도쿄, 베트남 호치민에 하노이까지. 바다 건너 남의 나라로 공개방송도 많이 다녔다.

긴 시간 라디오 진행한 분들을 꼽자면 <두 시의 데이트 김기덕>, <배철수의 음악캠프>가 있지만 음악 프로와 <여성시대>는 다른 얘기가 되겠다. 라디오에 대한 어린 날의 동경과 호기심은 중학교 입학 선물로 아버지께서 사주신 빨간 트랜지스터로 비롯되었다.

13살 때부터 지금까지 61년을 이어져 온 라디오 사랑을 어찌 말로 다 할까나? 여성시대 50주년을 지켜보는 감회도 새롭다.



함께 그리고 새로운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2002년 군 제대 후, 늘 나와 '함께'해 왔던 이동 수단은 바로 자동차이다. 운전면허는 대학생이 되자마자 취득했지만 실제로 운전을 시작한 건 3학년으로 복학한 후였다. 그것도 구입한 지 12년이 넘은 아빠 차 캐피탈이 나의 첫 자동차였다.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수동기어로 운전하기란 여긴 힘든 게 아니었다. 특히나 언덕길을 올라가는 중간에 멈추게 되면 그 순간부터 다시 출발할 생각에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왼발로 클러치를 밟은 상태에서 기어를 1단에 넣고 오른발로 엑셀을 지그시 누름과 동시에 감각적으로 왼발을 서서히 떼다고 하지만 이내 부르르르 덜컥. 시동이 꺼지기 일쑤였다. 그렇게 시내 도로를 달리는 것도 진땀이 났지만 운전의 완성은 주차라 했던가. 엄연히 캐피탈은 아빠 차였기에 우리 집 골목길에 일렬주차할 깔끔하게 해놓지 않으면 아빠 차를 빌려 쓸 수 없었다. 하지만 세로로 위아래 주차된 차들 사이는 백번을 움직여도 들어갈 수 없는 미지의 공간이었다.

그런 초보의 미숙함도 잠시. 수동운전의 묘미를 만끽하며 앞뒤 자리에 친구들을 태우고 얼마 남지 않은 캠퍼스 시절을 썩썩 달렸다.

그리고 이어진 사회생활을 ‘함께’하게 될 진짜 나의 첫 차를 할부로 구매했다. 당시 대우에서 출시한 매그너스. 아직도 처음으로 시동을 거는 순간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캐피탈에서 십 년이 훌쩍 넘은 시간 동안 자동차에 들어간 기술력이 이렇게나 발전했다니! 너무 정숙해서 시동이 걸린 건가 몇 번을 확인했고, 음악도 CD를 넣어서 편하게 감상할 수 있었다. 혼자 타고 다녀도 좋았지만 그맘때 지금의 아내를 여자친구로 만나기 시작했다. 당시 춘천에서 방송국 생활을 시작한 나는 서울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경춘국도를 매그너스로 신나게 왕복했다.

3년의 연애 기간. 그사이 난 서울로 직장을 옮겼고 이후 바로 결혼했다. 그 이듬해 새로운 식구가 생겼고, 우리가 ‘함께’할 자동차는 SUV 모델로 바뀌었다. 남편과 아빠로서 우리 식구들을 안락하게 모시고 싶었다. 그런 진지한 핑계로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두 아들이 아장아장 걷고 뛰어놀 때도 몇 번의 차량 교체가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질없고 철없는 짓이었지만 그래도 그 차들과 ‘함께’ 우리 네 식구는 전국 방방곡곡 신나게 누볐다. 봄이면 이른 꽃이 피는 남쪽으로 여름엔 동서남쪽 가리지 않고 바다로 가을엔 산으로 겨울엔 눈이 쌓인 강원도로. 하지만 작년부터가는 두 아들이 점점 내 차를 ‘함께’ 타는 일이 줄어들었다. 옆자리에 아내가 탈 뿐. 중고대학생들이 그렇게 한 해 한 해 성인이 되어가겠지. 아빠 차를 탈 일이 줄어들겠지. 더 이상 우리 식구에게 넉넉한 SUV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나 역시 삼십 대 시절보단 철이 들어서 그때처럼 바로 실행에 옮기진 않겠지만 두 아들 녀석이 성인이 되면 ‘새로운’ 자동차로 바꾸어야겠다고 마음먹어본다.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로그인도 얼굴 인식으로 되면 편할 텐데

바쁘데
은행까지
가야 하나?

나한테 딱 맞는 금융 상품은 있을까?

계좌 개설도 더 쉽고 간편해지면 좋겠다

인증 한번으로 사업장들을 다 관리할 수 없나?

사장님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은행 방문 없이, 복잡한 절차 없이 쉽고 빠르게,
새로워진 기업스마트뱅킹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찾아갑니다.

새로워진
기업스마트뱅킹

i-ONE
기업



인증서 하나로
여러 사업장 동시 관리



생체·패턴인증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직관적 UI/UX와 스마트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72688(2024.12.05) 유숙기(2025.12.04)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외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항에 따라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 고객센터(☎1566-2568)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은행에서 창업 중

언제
어디서나
IBK 비대면채널에서
사업자등록부터
은행 거래까지
가능한 세상,
현실이 되다



이제, 사업의 시작을 쉽고 편하게
IBK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